

mécénat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메세나

2018 SPRING VOL. 102



+ THEME MECENAT

2018
세계화와 한국미술



2018 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

Kumho Art Hall Beautiful Thursday Concerts

MAR-APR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금호아티스트 'THE WINNERS'
KUMHO ARTIST "THE WINNERS"

전석 4만원

3.8
손정범
JEUNG BEUM SOHN, PIANO

3.29
함정 + 박나리
KYEONG HAM, OBOE + NAREY PARK, PIANO



클래식 나우!
CLASSIC NOW!

전석 5만원

3.15
아샤 파테예바 + 코야나기 미나코
ASYA FATEYEVA, SAXOPHONE + MINAKO KOYANAGI, PIANO

4.12
조진주 + 김현수
JINJOO CHO, VIOLIN + HYUNSOO KIM, PIANO

4.26
레미 제니에
REMI GENIET, PIANO



인터내셔널 마스터즈 시리즈
INTERNATIONAL MASTERS SERIES

전석 6만원

3.22
알렉세이 볼로딘
ALEXEI VOLODIN, PIANO

4.5
콘스탄틴 리프시츠
KONSTANTIN LIFSCHITZ, PIANO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KUMHO ASIANA SOLOISTS

전석 4만원

4.19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KUMHO ASIANA SOLOISTS

주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 후원 아시아나항공(주) | 예매 금호아트홀, 인터파크, 티켓링크 | 문의 02 6303 1977
할인 123요금제 적용, 경로자(만 70세 이상) 또는 유스(만 7-24세) 해당 시 40% 할인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 50% 할인(본인 확인용 신분증 지참 시, 중복할인 불가)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CONTENTS

07



38



43



메세나 통권 102호

발행일 2018년 3월 9일

발행인 김영호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Tel. 02-761-3101~2

기획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

제작 디자인소호

홈페이지

한국메세나협회 www.mecenat.or.kr

기업과 예술의 만남 www.aandb.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cenat.korea

테마기획

- 04 **특집**
한국미술의 세계화 현황과
미술시장
- 08 **칼럼**
한국미술의 세계화,
첫걸음을 떼다
- 12 **인포그래픽**
세계 미술시장 속 K-Art의
위치를 살펴다

메세나 포커스

- 14 **메세나 스토리**
세기 전환기,
비트겐슈타인 가문의 문화예술 후원
- 18 **메세나 현장**
교사가 변해야 아이들도 변한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교사 창의예술교육 연수'
음악을 매개로 세상과 소통하는
위기 청소년들
CJ문화재단
'특업음악교실'
9년의 활동을 돌아보다
한화그룹
'한화예술더하기 성과보고회'
- 24 **휴머니티 書齋**
무대 위에 피어난 창작의 꿈
두산아트센터 DAC Artist 김수정·윤성호·이승희
- 28 **해외 소식**
메세나를 통한 독일 기업들의
사회적 약속과 책임
- 32 **메세나 갤러리**
'빛과 공간의 마술' 예술은 감상자가 완성한다
뮤지엄산 제임스 터렐관
- 34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균형과 질서의 미학을 창조하다
한국 전통 매듭과 마크라메

메세나 커뮤니티

- 38 **서포터즈**
세계를 빛낸 아름다운 동행
설원량문화재단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장애 아동의 예술 교육을 위한 기금 조성
한미약품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 40 **메세나 소식**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제10대 한국메세나협회 신임 회장 취임
메세나 기업인 네트워크
'네오 메디치 포럼' 발족
- 41 **A&B 스토리**
기업과 예술의 뜻 깊은 콜라보레이션
종근당 예술지상 - 종근당 & 아트스페이스 휴
- 42 **회원사 소식**
회원사 소식
- 46 **캘린더**
회원사 공연·전시 일정 소개
- 48 **회원사 리스트**
회원사 소개

세계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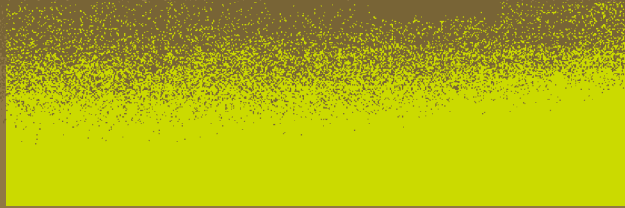
한국 미술

한국미술이 해외 미술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다.

앞서 우리 미술계 거장들이 세계 갤러리의 문을 두드렸다면,
이제 젊은 작가들이 뒤이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미술이 변방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국제무대에서 대우받고,
우리 작가들이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한국미술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증거다.

이러한 때, 세계미술계의 흐름에 한국미술과 우리 작가들이
합류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지 다양한 시선으로 살펴본다.



특집 한국미술의 세계화 현황과 유치산업 미술시장 글. 서진수

칼럼 한국미술의 세계화, 첫걸음을 떼다 글. 김슬기

인포그래픽
세계 미술시장 속
K-Art의 위치를 살피다

글.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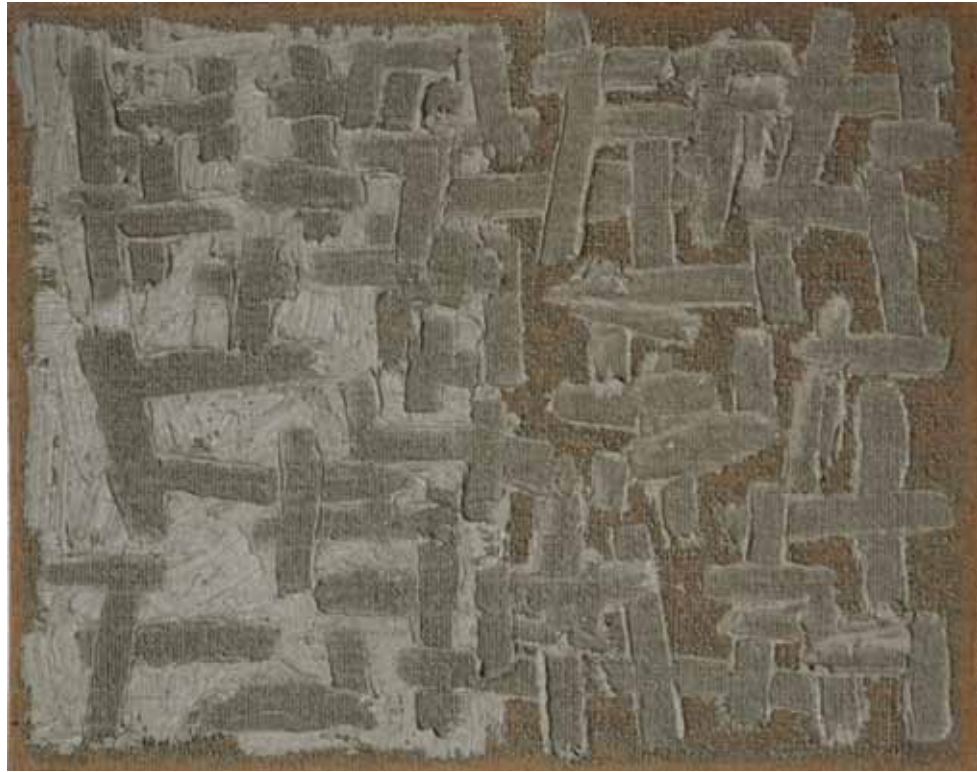


특집

한국미술의

세계화 현황과

미술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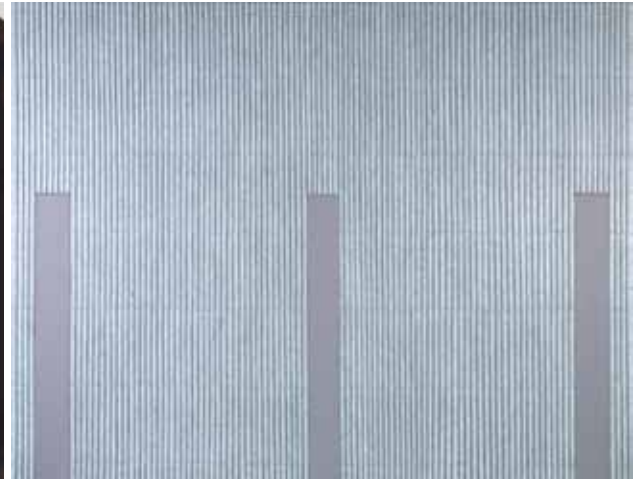


하종현 <Conjunction> ©Artworks Paris Seoul

2015년 한국 미술시장은 화랑 역사 45년, 그리고 경매 역사 17년 만에 '단색화' 작품을 다량 수출했다. 30년 전에 프랑스의 피악(FIAC)과 일본의 니카프(NICAF) 등 해외 아트페어에 나가 한국 미술을 소개하고 판매한 적은 있지만, 해외 화랑과 경매사, 딜러 등 해외 바이어가 직접 한국을 찾아와 작품을 구매하고 전시와 경매에 출품해줄 것을 요청하여 집단으로 관세선을 통과한 것은 박서보·정상화·윤형근·정창섭·하종현 등 단색화 작가들의 작품 수출이 시작이다. K-drama, K-pop, K-food, K-fashion 등 한류의 물결과 함께 K-art 열풍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이다.



윤형근 <Umber> ©다도화랑



박서보 <모법 No.031219> ©경기도 미술관

세계 미술시장이 주목한 단색화

단순하고, 더러는 반복적인 형태의 단색화가 세계화되는 데 40년이 걸렸다. 기업들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앞장서고 조국 근대화에 맘을 쏟던 1970년대에는 전통회화인 한국화와 박수근, 이중섭 등의 유화 작품이 주류를 이루어 벽지와도 같은 단색화 작품을 이해한 사람도 구매할 사람도 거의 없었다. 명칭도 서구 미술의 유파에서 따온 모노크롬(Monochrome)으로 불렸다. 그러나 서구의 미학과는 다른 한국적 사상과 철학으로 한지와 마대 등 독특한 재료를 사용하며, 조용히 수도하듯 반복된 작업을 한 작가들의 작품이 40년을 기다려 재조명됐다. 그리고 2006,7년에 일었던 21세기 한국 미술시장의 1차 붐 이후 또다시 2차 붐을 일으켰으며, 국내 수요를 넘어 해외 수요를 창출하기 시작했다.

단색화의 가치상승과 추상화 열풍은 한국 현대 미술사와 미술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3년 동안 국내 경매 시장에서 거래된 단색화 주요 작가 5명의 경매시장 낙찰총액이 59억 원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한 해에만 56억 원어치가 거래됐다. 그리고

2015년에는 국내 시장과 홍콩 시장까지 합쳐 전년도의 7.3배에 달하는 412억 원어치가 거래되며 미술시장이 온통 단색화 열풍이었다. 그러나 2년 반이라는 단기간의 잦은 경매와 공급과잉, 그리고 국내 컬렉터의 자금지출 한계 등으로 2016년에는 다시 2015년의 60% 수준인 248억 원으로 낙찰총액이 급감했다. 2017년에는 5대 작가의 낙찰총액이 또다시 2016년의 55% 수준인 136억 원으로 하락했다.

단색화 열풍의 경과와 속제

단색화 붐은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이 국내 경매에서 기반을 다지고, 홍콩에서 해외 경매를 추진하자 세계적인 경매회사인 크리스티와 소더비도 뉴욕과 홍콩에서 전시와 판매를 겸한 프라이빗 세일, 그리고 고가 작품을 경매하는 이브닝 세일에서까지 단색화를 출품하여 그 열기가 더해졌다. 국내외 화랑들도 앞다투어 단색화 작가의 전시를 개최하고, 세계 유수의 아트페어와 특별전에서 전시판매와 기획전이 열리고, 베니스 비엔날레에서까지 병행전시가 열리며 2014년에서 2016년까지 한국 추상미술과 단색화는 한국 미

술시장 역사상 가장 핫한 전성기를 구가했다.

40년만의 부활, 2년 반의 호황이란 역사를 쓴 단색화 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술시장을 변화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가격 상승이었다. 5대 작가의 작품 낙찰이 연간 몇십 점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106점, 2015년 307점, 2016년 207점이 쏟아져 나왔다. 몇천만 원에서 1~2억 원 하던 작품 가격도 2년 반 사이에 수억 원대로 상승하여 1백만 달러(약 10억 원)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36억 원으로 감소(149점 낙찰)했고, 국내 미술시장에서는 급상승한 가격 때문에 거래에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행히 단색화 붐 이후 단색화 작가들의 스승이자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인 김환기의 작품이 주목받기 시작하여, 박수근의 <빨래터>가 2007년 세운 45억 2천만 원을 뛰어넘는 65억 5천만 원의 최고가 기록이 달성됐다.

단색화 붐과 K-art의 세계화 과정에서 우리 미술 시장은 많은 것을 배웠다. 한국미술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많은 작품이 판매되고, 그 결과가 정보화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둘째는 유통기관인 화랑과 경매회사의 이익이 많이 발생하

여 투자 여력이 생겨야 한다는 점, 셋째는 한국 작가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 기업, 개인의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프로모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미술시장은 미술관 전시와 세계적인 평론이 있을 때 세계화가 수월해진다. 한국 작가 대부분이 이 부분에 약하다. 넷째는 검색의 시대에 수요자 모두가 작가의 경력과 경매 결과를 검색하기 때문에 경매 기록의 중요성이 두드러졌다. 작품 판매의 핵심인 펀더멘탈(Fundamental)이 약한 점은 미술시장의 역사가 짧고, 투자와 큰손 컬렉터의 수가 적고, 인지도 형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경매시장 거래액 기준 세계 500대 작가에 우리 작가는 겨우 8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현대전화, 자동차, 철강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팔리는데 한국 미술품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 그것은 전시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피카소, 앤디워홀, 브루스 노이만, 게르하르트 리히터, 요셉 보이스 등 세계적인 작가는 매년 50~200건의 크고 작은 전시가 열린다. 국내 작가는 고작 1~2건, 많아야 3~4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부분 국내 전시다. 작품을 글로 서술하고, 그 가치를 평가해주는 평론도 필요하고, 특히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평론

가가 쓴 글의 번역이나 서구평론가의 글이 필수적인데 모든 게 미약하다. 중국 작가들이 홍콩과 싱가포르 전시를 통해 영어평론이 붙고, 자국의 경매회사와 크리스티, 소더비 등이 관심을 가지며, 펀드까지 조성되는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한국 미술시장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세계적인 작가와 프로모션 능력이 있는 화랑의 수가 적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컬렉터 수가 적는데, 특히 큰손 컬렉터가 태부족이다. 1950~60년대 아메리칸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 미국의 컬렉터, 미술관, 기업들이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잭슨 폴록을 키웠고, 2010년대 중국의 기업들이 컬렉션과 미술관 설립을 통해 수십 명의 작품을 수십 점씩 대거 구입하고, 전통 미술인 동양화(그들은 國畫라고 부르고, 서양화는 西畫, 油畫라고 부르는 자긍심을 보임)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 베이징 빠오리(保利) 경매에서 치바이스(齊白石, 1860~1957)의 병풍 작품 <山水十二條屏>이 아시아 경매시장 최고가격인 1,536억 원에 낙찰된 것도 중국의 국부 증진, 미국을 압도하는 억만장자 수 급증, 그리고 5대 투자 포트폴리오에 예술품이 포함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박수근 <빨래터> ©GALLERY HYUNDAI





레오나르도 다빈치 <구세주(Salvator Mundi)>
1500년 작 ©Louvre Abu Dhabi



치바이시(1860~1957)는 후난 성 상탄 현의 가난한 농가에 태어나 독학으로 그림을 배우고, 30대가 돼서야 글을 익혔다. 중국미술가협회 주석이자 인민예술가로 추앙받고 있다. ©Zheng Jingkang

한국미술의 세계화,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가능성 있는 작가는 많다. 그러나 우리의 미술시장 규모는 2006,7년 붐 때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이나 4~5천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경제학적으로 분류하면 우리 미술시장은 아직 어린 유치산업*에 속한다. 문화콘텐츠산업 가운데 20조 원 규모의 출판산업, 17조 원의 방송산업, 15조 원의 광고산업은 차치하고라도 만화(1조 원), 애니메이션(7천억 원)보다도 작은 산업이다. 개별 컬렉터는

미술시장 호황기에만 밀려왔다 밀려간다. 공공수요를 대변하는 규모 있는 미술관이 매우 적고, 국공립 미술관의 작품구입비 총액이 200억 원도 안 된다. 규모를 어느 정도 갖추었거나 작품구입비가 10억 원대 이상인 미술관의 숫자가 미국 788개, 영국 194개, 프랑스 155개, 독일 114개, 일본 88개, 한국 9개로 공공수요 부분까지 협소하니 미술시장이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한다. 미술품 구매와 소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이고, 개인과 기업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매우 빈약하다.

큰물에 큰 물고기가 살고, 물이 많아야 물고기의 다양성도 논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감상의 시대를 넘어 구입의 시대로 진입한 지금 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기업, 부유층 개인, 문화 마인드 소유자가 할 수 있는 미술시장 지원은 첫째가 작품 구입이다. 기업이 제품 판매로 기술개발과 생산, 마케팅 등 모든 것을 해결하듯 작품 판매가 잘되면 미술시장도 커지고 미술 한류도 지속 가능하다. 회사에 전시할 작품이나 회사가 설립한 미술관 또는 미술관과 기관 등에 기증할 작품 구

입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전시 지원이다. 작가 전시, 비엔날레 참가 지원, 국내외 미술관 행사 및 특별전 지원 등이 있다. 미국의 구겐하임, MoMA, 영국의 테이트 모던, 프랑스의 생테티엔, 독일의 베를린 미술관 등 유수의 미술관 전시는 대부분 지원금 후원이 필요하다. 제작비, 작품운반, 도록, 심포지엄 개최 등에 5~10억 원 정도가 든다.

세 번째는 기획자 지원이다. 좋은 전시는 좋은 기획자가 만든다. 예산이 많을수록 좋은 기획자를 초빙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도 좋아지고 작가 선정도 강해진다. 미술시장 확대를 위해 미술관의 초대전과 기획전, 비엔날레 참가 등은 아주 중요한 경력 사항이다. 최근 들어 미술관 전시와 관련된 작가 보수지급 제도(Artist Fee)와 전시 기획비 논의가 활발해졌으나 여전히 절대액이 부족한 상태다. 미술관과 문화예술회관이 하드웨어에 치중하고 소프트웨어인 운영비와 작품구입비가 너무 적거나 없어 불만한 전시를 개최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역사 속에서 문예 부흥은 통치자가 사치할 때, 경제가 호황일 때,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사상이 싹텄을 때 일어났다. 현대에는 프랑스의 루브르 미술관처럼 <모나리자>로 매년 800만 명의 관람객을 부르고, 아부다비 문화부처럼 새로 개관한 아부다비 루브르 미술관 소장을 위해 경매에서 다빈치의 <구세주>를 4,989억 원에 구입하여 시작부터 이슈를 만들고 있다. 이전에는 부가 문화산업을 키웠으나, 지금은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 경제와 문화의 상호의존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초인 문학, 음악, 미술 분야는 공동발전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

유치산업*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초기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의 산업

한국미술의 세계화,

첫걸음을

떠다

칼럼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뉴욕의 누추한 집에서 캔버스가 없어 신문지면에 푸른 물감을 꺾꺾 눌러 찍은 그림을 그린 이가 있다. 수화 김환기(1913~1974)다. 1963년 10월 20일 한국 대표 작가로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부와 명예가 기다리고 있는 고국 대신 낯선 타국인 미국 뉴욕에 정착했다. 당시 뉴욕은 바넷 뉴먼과 마크 로스코 등 추상표현주의 화가들이 세계 화단을 휩쓸던 때였다. 짧게 머물 예정이었지만 그는 끝내 뉴욕을 떠나지 않았다. 1974년 뉴욕에서 뇌출혈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장장 11년간 캔버스 위에 무수히 점을 찍어나간 이 고된 여정은 그를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로 만들었다. 2017년 4월 12일 케이옥션 경매에서 김환기의 전면점화 <고요(tranquility) 5-IV-73 #310(1973년)>는 한국 미술품 사상 최고 낙찰가 65억 5천만 원을 기록했다. 이미 국내 미술시장에서 김환기의 라이벌은 김환기밖에 없다. 2007년 이후 9년간 국내 미술품 최고가 기록 1위를 지켜온 박수근의 <빨래터>의 기록을 2016년 갱신한 이후 무려 6점의 작품이 연이어 최고가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세계미술계가 주목하는 한국 단색화의 매력

김환기를 통해서 한국미술 최초의 100억 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과 중국보다, 지나친 저평가를 받아온 한국 미술이 100억 원 시대를 맞는다면 세계시장에서도 마침내 주류로 인정받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환기의 부각이 반가운 건, 한국미술이 마침내 세계 속에서 인정받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1970년대 이후 추상화 작업을 이어온 박서보·정상화·정창섭·하종현 등도 뒤늦은 주목을 받으며 ‘단색화 전성시대’를 열고 있다.

김환기의 뉴욕시대 작품들은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에 한국 단색화와 함께 나란히 걸리며, 단색화 열풍이 점화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단색화’라는 이름으로 한국미술의 한 세대를 조명하기 시작한 건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윤진섭 교수가 기획해 연 ‘한국의 단색화’전이 시발점이었다. 전기 단색화가에는 김환기·곽인식·박서보·이우환·정상화·정창섭·윤형근·하종현이, 후기 단색화가로는 이강소·문범·이인현·김춘수·노상균 등 14명 작가가 참여한 대규모 전시였다. 이듬해 국제갤러리는 런던 프리즈 아트페어에서 단색화를 대거 선보였고, 베니스비엔날레 진출은 열풍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단색화 특별전은 베니스비엔날레 전시를 거

쳐, 2013년 10월 록펠러센터 크리스티 뉴욕, 11월 홍콩 크리스티 전시로 이어졌다. 단색화의 부상은 한국미술의 독창성을 세계 미술계에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김환기는 자신의 그림 속에 동양적 화법에 송고미를 녹여내, 한국만의 새로운 추상을 탄생시켰다. 단색화가 뒤늦은 주목을 받는 것도 동양사상이 농축된 절제된 화법이 주효했다.

단색화는 마크 로스코의 색면화나 도날드 저드, 아그네스 마틴, 엘스위스 켈리 등의 미니멀리즘과도 다르다. 한국의 작가들은 서양의 추상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캔버스와 오일을 수용하면서도 수묵, 서예, 마대, 한지, 고령토 등의 다채로운 재료를 접목하는 독창성으로 ‘한국적 추상’을 발명했다. 이처럼 독창성을 인정받은 결과, 뉴욕현대미술관, 구겐하임 뮤지엄, 시카고 아트인스티튜드 등에서 소장품으로 연이어 구입됐고, 경매시장에서 작품 가격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열린 런던 화이트큐브의 박서보 개인전, 2017년 뉴욕 리만머핀 갤러리의 김기린 개인전, 2017년 런던 레비 고비 갤러리에서의 정상화 개인전 등이 이어진 것도, 그룹에서 개인으로까지 세계 미술계의 관심이 넓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위작 파동으로 흥역을 앓긴 했지만, 이우환 화백도 한국미술의 저력을 알린 ‘한국화의 쌍두마차’다. 2009년 브뤼셀 왕립 미술관, 2011년 구겐하임 뮤지엄 회고전, 2014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대규모 전시는 한국 작가 최초라는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웠다. 노자 사상을 바탕으로 한 특유의 호흡과 철학으로 만들어낸 일련의 추상화들은 세계시장에서 10억 원 이상의 고가로 꾸준히 팔리면서, 이우환 화백은 단색화 열풍이 있기까지 한국미술의 간판 작가로 활약했다.

비주류에서 주류로 움겨가는 한국미술

아직 미술 한류라는 말은 조금 시기가 이른 감이 있다. 그럼에도 세계미술계의 관심이 마침내 한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전망은 이제 부정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김환기, 이우환을 위시한 선배들이 소위 반세기가 넘는 화업을 바탕으로 만년에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면, 후배 세대는 일찌감치 세계를 무대로 투사처럼 싸우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세계를 누비는 국내 작가 중의 첫손가락에 꼽히는 작가는 양혜규와 이불, 두 여성 작가다. 지난해 양혜규는 40대 한국 작가로는 이례적으로

독일 미술의 명문 슈테델슐레(Städelschule)의 순수미술학부 정교수로 임명됐다. 양혜규는 페미니즘 담론부터 이주, 계층 문제, 실향 등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문명과 정체성에 대해 다양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작업으로 주목받아왔다.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로 일약 스타가 된 양혜규는 함부르크 쿤스트할레, 파리 퐁피두센터, 삼성미술관 리움,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미술관, 뉴욕 뉴뮤지엄 등에서 주요 개인전을 가졌다. 2012년 카셀 도큐멘타13, 2016년 몬트리올 비엔날레 등에 참여한 바 있다.

이불은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개관과 함께 ‘현대차 시리즈’의 첫 작가로 초청된 작가다. 1980년대 도발적인 퍼포먼스와 설치작업으로 사회 권력구조와 가부장제를 비판하는 작업을 하며 주목 받았고, 1997년 뉴욕현대미술관을 떠들썩하게 만든 부패하는 낱생선 작업 <화엄>을 통해 세계미술계에 이름을 각인시킨 그는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로 나섰고, 뉴뮤지엄, 구겐하임미술관, 파리 퐁피두센터, 도쿄 모리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이어왔다. 이들과 더불어 세계 최고 권위의 미술축제인 카셀 도큐멘타 본 전시에 2012년에 초청된 문경원과 전준호, 2017년에 초청된 김수자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은사자상에 빛나는 임흥순의 향후 작업도 세계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상과 설치를 주 작업으로 하는 이들은 유목민처럼 전 세계를 누비고 있다.

작가 육성, 직접 후원 등 적극적인 자세 필요

블루칩으로 인식되고 있는 원로화가들의 단색화만이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국내 미술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견 및 신진작가들의 활동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미술의 개성이 이제야 해외에서 인식되기 시작한 단계임을 고려하면, 이들을 통한 한국미술의 세계화를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내 화랑과 경매사들이 블루칩 작가들과만 작업을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젊은 작가를 육성하는데 나서준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작가와 미술관-화랑의 노력에 더해서, 한국미술 세계화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줄 이들은 후원자들이다.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3천 965억 원 규모(예술경영지원센터)에 불과하다. 국내 컬렉터와 미술관, 기업의 더 활발한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와 전시장으로의 직접적인 후원 사례는 아직 부족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현대차 시리즈를 장기간 후원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과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자리 잡은 삼성미술관 리움 등의 사례가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미술계의 후원자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계최대 아트페어인 아트바젤을 참고할 만하다. 올해로 4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아트바젤은 스위스금융그룹 UBS가 1994년부터 메인 파트너(후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다비도프, 오데마 피게, 넷젯트, BMW 등 고급 브랜드도 아트바젤에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다. 스위스 바젤과 미국 마이애미, 홍콩에서 연이어 열리는 아트바젤은 이미 전용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는 슈퍼리치를 사로잡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곳이 됐다. 게다가 2013년 시작된 아트바젤 홍콩은 이미 전 세계 40여 개국 200개 이상의 갤러리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고의 아트페어로 단기간에 자리 잡았다. 국내 기업들이 슈퍼리치들이 대거 방문하는 아트페어의 파트너로 참여한다면, 한국미술이 주목을 받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권위의 미술 이벤트로 자리 잡은 광주비엔날레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 아트페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여전히 동네잔치에 불과한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의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 광주비엔날레와 KIAF 등에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국내 기업의 후원이 더해진다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미술허브를 두고 벌이는 경쟁에서 한국은 중국, 일본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미술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

세계 미술시장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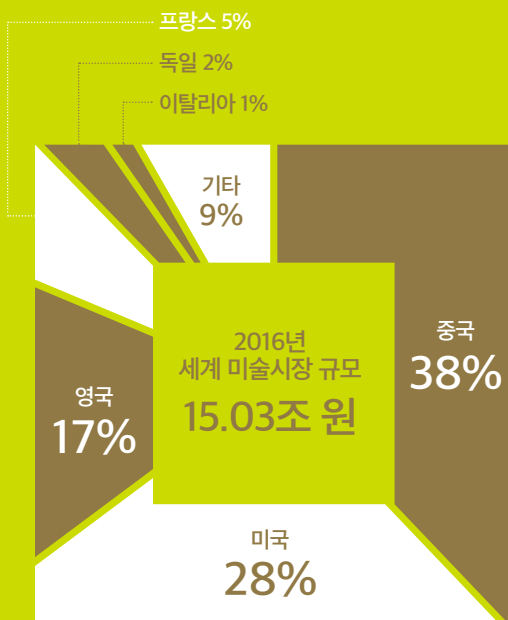
K-Art의 위치를

살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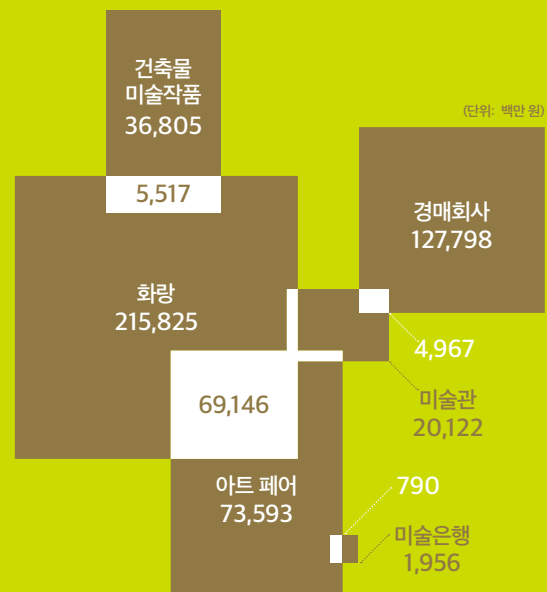
2016년 세계 미술시장에서 중국시장의 작품거래 금액은 5.7조 원(47억 9천만 달러), 거래량 91,400점을 기록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1위였던 미국시장의 작품거래 금액은 약 4.2조 원(35억 달러), 거래량 72,500점이었다.

중국의 주요 컬렉터는 즉흥적인 경매응찰이 아닌 철저한 계획에 따라 문화 파급력과 미술관 관람객 수를 보장하는 작품에 응찰하는 경향이 짙었고, 이에 국제적으로 뛰어난 명작을 찾아 서구작품의 구입을 늘렸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네(Monet), 반 고흐(Van Gogh) 등 인상주의 대표작가들과 피카소(Picasso), 렘브란트(Rembrandt), 베이컨(Bacon), 모딜리아니(Morandi) 등의 구입이다. 중국 본토에서는 베이징이 미술시장을 주도하며 연간 총 작품거래 금액 기준 약 2.7조 원(22억 9천만 달러)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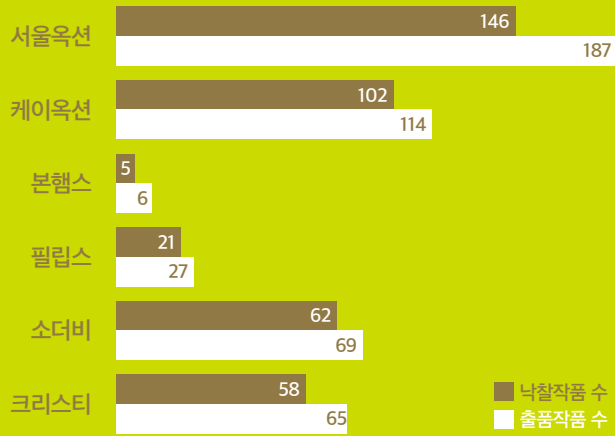
비록 작품거래 금액은 감소했지만, 서구의 작품 거래량은 398,000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순수미술 경매시장의 판매액이 전년 대비 110%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고,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시장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대안 투자처로서의 위치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현재 서구 미술시장에서 근대미술(Modern Art) 장르가 가장 안정적이고 다양하다는 평가다(시장점유율 44%, 작품거래 금액 약 4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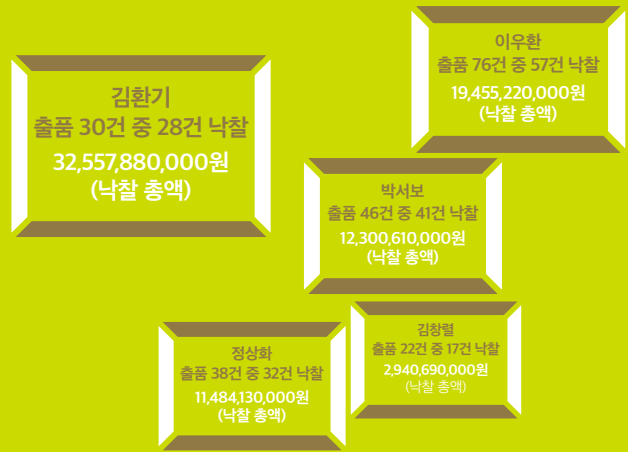
세계 미술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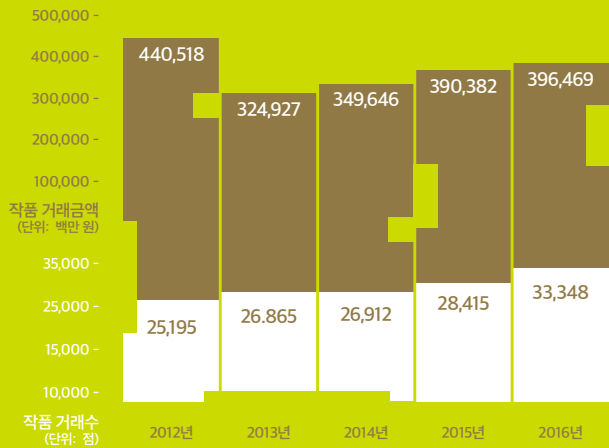
국내 미술시장 작품거래 규모(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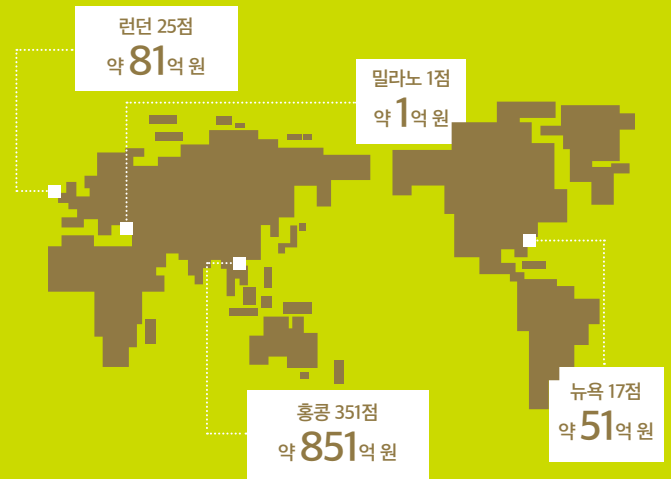
주요 경매사별 한국작가 출품·낙찰 작품 수(2016년)



한국작가 해외 경매 낙찰건수 순위(2016년)



국내 미술시장 작품거래 현황



주요 지역별 해외 경매 한국작가 낙찰 결과(2016년)



세계 상위 10개 경매사(2016년)

왼쪽 도표처럼 상위 10개 경매사 중 6개가 중국에 위치해 있어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시장의 경우 서예와 고서화(Calligraphy and traditional painting)가 낙찰 건수의 92%를 차지하며 미술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홍콩은 '유화와 현대미술(Oil Painting and Contemporary Art)'의 판매액 성과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역동적인 시장이다. 참고로 한국의 경매사 중 서울옥션은 작품거래 금액 867억 원, 경매작품 수 1,143점으로 15위에 위치했다. 🇰🇷

출처 : 아트프라이스 <2016 미술시장 보고서(The Art Market in 2016)>, 예술경영지원센터 <2017 미술시장 실태조사>

세기 전환기(The Turn of the Century) 비트겐슈타인 가문의 문화예술 후원

01



02



19세기 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수도 빈(Wien)은 세기말(fin-de-siècle)의 정점에 있었다. 1895년부터 1914년까지 빈은 철학은 물론, 미술과 건축, 음악, 문학, 심리학 등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인 활동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쇼펜하우어와 키에르 케고르 사상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고, 12음계 음악과 현대적인 건축양식, 법실증주의와 논리적 실증주의, 비구상적 회화 그리고 정신분석학의 출현 등과 같은 역사상 괄목할 만한 현상이 빈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철강업을 중심으로 부를 쌓아 올린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가문은 빈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19세기 말, 빈 문화의 중심지였던 비트겐슈타인 가(家) 살롱

01

1898년 카를과 레오폴디네의 은혼식 때 촬영한 가족사진 ©Ray Monk

02

1917년 경 빈에 모인 비트겐슈타인 가족들. 왼쪽부터 쿠르트, 파울, 헤르미네, 막스 잘처(헬레네의 남편), 레오폴디네, 헬레네, 루트비히 등이다. ©Michael Nedo

03

왼손을 건반 위에 올린 파울 비트겐슈타인의 모습(1927년 경) ©Alamy

04

20세기 최대의 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Alchetron

비트겐슈타인 가문의 재산은 어마어마했다. 당시 유럽에서 비트겐슈타인 가문보다 더 부자는 저 유명한 로트실트(Rothschild, 로스차일드 가문의 독일어 표기)집안 뿐이었다. 로트실트는 은행업을 통해 세계 각국에 지점을 설치하고 오늘날 국제 금융자본의 바탕을 마련한 가문이다. 여하튼 비트겐슈타인 가문 사람들은 귀족과 같은 생활을 영위했고, 빈 시민들은 이들의 저택을 비트겐슈타인 궁전이라 불렀다. 다만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금욕주의자였던 카를은 거대한 부를 뽐내고 싶지 않아 단지 '집'이라고 불리길 원했다.

19세기 말의 빈은 지적 문화 운동의 산실로 다양한 문화예술과 사상이 고도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였다. 그런 가운데 알레가세(Allegasse) 거리에 있던 대부호 비트겐슈타인 가문의 저택은 당시 저명한 음악가, 미술가들이 모이는 중요한 장소였다. 이른바 그곳은 빈 문화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저녁 음악 모임에는 브람스(Johannes Brahms)나 말러(Gustav Mahler), 쇤베르크(Arnold Schoenberg), 베베른(Anton von Webern), 알반 베르크(Alban Maria Johannes Berg) 등과 같은 작곡가는 물론 바이올리니스트 요제프 요아힘(Joseph Joachim),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Pablo Casals),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 부르노 발터(Bruno Walter) 그리고 맹

인 오르간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요제프 라보르(Josef Labor) 등이 정기적으로 초대 되어 실내악을 연주했다. 이러한 음악 모임의 배후에는 비트겐슈타인의 안주인 레오폴디네(가족 간에는 '폴디'라고 불렸다)의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다.

또한 가문의 수장(首長) 카를 비트겐슈타인(Karl Wittgenstein)은 시각예술의 중요한 후원자 역할을 했다. 비트겐슈타인 가문의 큰딸인 헤르미네(Hermine)는 클림트, 모제르, 로댕의 작품들을 수집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쉴레(Egon Schiele), 코코슈카(Oskar Kokoschka)와 같은 미술가들 역시 비트겐슈타인 가문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문제는 카를이 성공한 사업가로 당대의 쟁쟁한 예술가들과 친분을 쌓음으로써 고금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부르주아적 특권을 누렸지만, 그의 자식들(5남 3녀) 대부분은 문화예술을 창조적으로 생산하고 기여하는 데에 더 큰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있었다. 둘째 아들 쿠르트(사업)를 제외하고 큰아들 한스는 음악에, 셋째 아들 루돌프는 연기(배우)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진 아버지와의 갈등을 이기지 못한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넷째 아들 파울 역시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오른쪽 팔을 잃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왼손만으로 연주할 수 있는 연주가가 됐다. 라벨(Ravel)이 작곡한 '왼손을 위한 협주곡 D장조'는 바로 파울을 위한 곡이었다. 막내 아들 루트비히는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로, 실증주의 철학과 분석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이 됐다.

03



04



가문 전원이 활발하게 동참한 문화예술 후원

예술적 기질이 농후했던 카를은 음악 취향으로 볼 때 쇤베르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 당시의 현대음악에 일가견이 있었다. 미술에 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빈 분리파와 같은 신진 화가들을 지속해서 후원한 것을 보면 취향과는 별개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와 아내 레오폴디네는 요제프 라보르를 비트겐슈타인 궁전에 상주시키고 물심양면 지원했고, 살롱을 개방해 당대 명사들의 문화적인 교류를 이끌어냈다.

반면, 사업에 더 큰 욕심이 있었던 아버지와는 달리 그의 아들, 딸들은 예술과 철학에 소질

이 많았고 가업을 잇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비트겐슈타인 형제들은 문화 예술, 사회공헌에 많은 자본과 시간을 투자했고,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거액을 기부하며 친분을 맺었다. 헤르미네는 빈 분리파를 후원하는 데에 많은 힘을 쏟았고, 막내딸 마르케레테는 프로이트에 관심이 많아 철학자들을 친구로 두고 후원했다. 파울은 그 자신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으므로 라벨 · 프로코피예프 · 브리튼 등 동시대 작곡가들에게 원손용 피아노 작품을 의뢰하면서 수시로 많은 위촉료를 지원했고, 루트비히는 가난한 예술가들과 어울리며 생활을 도왔다.

한편 비트겐슈타인 가문은 국가의식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졌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 가문의 운명이 바뀌는 변곡점이 됐는데, 오스트리아군에 입대한 이들 중 쿠르트는 군당국의 후퇴 명령에 수치심을 느껴

자살했고, 파울은 한 팔을 잃었으며, 루트비히는 포로가 되기도 했다. 전쟁 기간에 헤르미네는 불우아동을 위한 학교를 세웠고, 헬레네와 그레틀은 병원에서 자원봉사와 기부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전후 형제들은 궁전으로 돌아와 가문을 수습하고 카를이 물려준 재산을 바탕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파울은 음악가로, 루트비히는 철학자가 됐다. 딸들도 예술후원자로, 헬레네는 귀부인이 되어 안락한 삶을 누렸다.

비트겐슈타인 형제들은 문화예술, 사회공헌에 많은 자본과 시간을 투자했고, 가난한 예술가들에게 거액을 기부하며 친분을 맺었다.

05



06



07





08

05

브람스(왼쪽)와 요아힘(오른쪽)의 모습으로,
두 사람 다 비트겐슈타인과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다.
©Music & Arts

06

예술가적인 기질이 많았으나 가문의 사업을
지속하는 데에 책임과 관심이 컸던 카를
비트겐슈타인 ©Alamy

07

빈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비트겐슈타인
가문의 살롱 전경(1910년 경) © Bookthrift

08

빈에 있는 비트겐슈타인 가문의 묘소 ©Papergirl

09

클림트를 필두로 콜로만 모저(Koloman Moser),
요제프 호프만(Josef Hoffmann) 등 19명의
미술가들이 빈 분리파를 결성했다. ©Suites
Culturelles



09

비트겐슈타인 가문의 종말

비트겐슈타인 가문에 다시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히틀러의 나치가 대두되면서부터다. 증조부 대신 모세스 마이어(Moses Meyer)가 유대인이었고, 레오폴디네의 아버지도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하여 대대로 믿었으므로 형제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1935년 9월 인종차별과 유대인 학살의 법적 근거가 된 '뉘른베르크법'이 제정되면서 순수혈통 유대인으로 분류되어 이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게 됐다. 이후 1938년 독일-오스트리아 합병이 공식화되면서 위기가 표면화되어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됐다. 파울은 미국으로 탈출하고, 루트비히는 영국으로 귀화했다. 하지만 헤르미네와 헬레네는 비트겐슈타인 궁전에 갇혀 연금 상태가 됐고, 이들이 살아남을 방법은 가문의 재산을 나치에 헌납하고 혼혈로 인정받는 길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은 불화와 갈등을 겪게 되고, 곧이어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이 나치의 패망으로 끝났음에도 다시 화합하지 못한 채 가문의 종말로 치달았다.

“대서양을 넘나들며 히틀러와 벌였던 재산을 건 줄다리기 과정에서 파울과 형제들 사이의 반목과 불화, 갈등은 극에 달했고, 마침내 지루하게 이어지던 머니게임이 막을 내린 후에도 형제간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음악과 예술로 하나가 되었던 가문의 영광은 제2차 세계

대전의 포화 속에서 주인을 잃은 비트겐슈타인 궁전과 더불어 무너져갔다. 카를에서 시작된 가계의 계보는 철학과 음악사의 커다란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는 쓸쓸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 <A Family at War(알렉산더 워 지음)> 서평 중에서

어쩌면 비트겐슈타인 가문은 보장된 지위와 재력, 정치·외교·문화계의 막강한 인맥을 바탕으로 안위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국가를 위해 생명과 재산을 기꺼이 희생했고, 당대의 예술과 철학에 아낌없이 후원하면서 가문의 이름을 영원히 남겼다. 클림트가 그린 그레틀의 초상

화, 파울이 최고의 작곡가들에게 의뢰한 왼손을 위한 피아노 작품들, 전장에서 집필한 루트비히의 <논리철학논고> 등은 후세에게 위대한 유산으로써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 가문의 역사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 사례라 칭할 만하다. 재산을 더욱 증식시키는 것보다 재산을 잘 사용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커다란 반성을 일깨워준다. 📖

비트겐슈타인 가문은 당대의

예술과 철학에 아낌없이 후원했고,

국가를 위해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면서

영원한 이름을 남겼다.

1 교사가 변해야 아이들도 변한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 '교사 창의예술교육 연수'

바이킹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하며 역학 에너지의 원리를 배울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다. 기존의 수업과정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안을 개발한 교육자라면 말이다.

한국메세나협회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교사 창의예술교육 연수'는 '교사가 변해야 아이들도 변한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교과서에 없는 창의적인 교육안을 교육자 스스로 개발하도록 돕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인 이 연수는 2017년에 이어 2018년 1월 22일~26일 춘천 상상마당 스테이에서 두 번째 연수를 진행했다.

아티즈(Artis)와 함께하는 교사 창의예술교육 연수

전국 초·중학교 정교사 50명을 선발해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영국의 예술 교육 전문 사회적기업 아티즈(Artis)가 워크숍 진행과 멘토링을 맡아 한국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 가능한 창의교육 방법들을 공유했다. 2004년 영국에서 설립된 아티즈는 학교 주요 교과 수업에 예술 활동을 통합시킴으로써, 전형적인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새로운 교육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영국의 예술교육 전문 사회적기업이다.

암기나 논리에 의존하는 수업이 아닌, 직관과 감각, 신체 활동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안을 개발하는 것이 이번 연수의 핵심. 참여한 교사들은 아티즈에서 사전에 제공한 영국 수업 영상을 보고 말 한마디 없이 동작으로 교육을 이어가고, 아이들이 충분히 집중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입을 모았다. 연수를 통해 배울 내용들이 실제로 적용된 모습을 보고 연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졌다.

참여 교사들의 감탄을 자아낸 프로그램들

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드라마, 음악, 움직임 등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피교육자의 입장에서 단계별로 체험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이 어떻게 학습자를 변화시키는지 체험하는 것이 핵심. 선, 점, 지그재그 등으로 소리의 높낮이와 느낌을 표현하는 그래픽 악보 수업은 음악의 높낮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어린이들에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방식의 수업이라며 음

01



교사 창의예술교육 연수

who

전국 초·중학교 정교사
50명, 영국의 예술교육 전문
사회적기업 아티즈(Artis)

what

창의적인 교육안을 교육자
스스로 개발하도록 돕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



02

01

2017년에 이어 올해도
교사 창의예술교육 연수가 진행됐다.

02

영국의 예술교육 전문 사회적기업
아티즈가 워크숍 진행과 멘토링을 맡았다.

03

교사 창의예술교육 연수에 참여한 전국 초·중학교
정교사 50명은 적극적으로 이번 연수에 임했다.



03

악 외에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수업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교사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온 강의실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만들고 그 소리를 그래픽 악보로 그려냈다. 그렇게 그려진 악보를 서로 교환해 리듬, 음의 높낮이 등을 다시 한번 몸으로 표현하면서 음악을 입체적이고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수업은 창의성은 물론이고 협업까지 함께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에게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물속 해초의 하늘거리는 느낌을 하늘하늘한 팔 동작으로 표현하거나, 참가 교사의 팔과 다리를 잡고 크게 흔들며 바이킹의 모습을 표현하는 등 사물의 특징, 질감, 형태 등을 몸으로 표현하는 드라마 수업 등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가능해 큰 호응을 얻었다.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수업은 참여 교사들에게 좋은 자극제였다. “창의 교육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워크숍에 참여했었는데, 이번 창의예술교육연수는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밝힌 조연자 교사는 “스토리텔링이나 음악

을 활용한 역할극 같은 창의교육은 어린이들이 집중력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최적이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빨리 수업에 적용해 보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세부 수업 아이디어 공유 및 멘토링 등을 통해 각자 교과목과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안을 개발했으며, 연수가 끝나고 아티즈의 지속적인 멘토링을 통해 연수 프로그램은 더욱 발전될 예정이다.

연수를 통해 발굴된 수업안 중 우수한 수업안을 뽑아 실제 수업에서 연수의 결과물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10개의 수업안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20개 교육안이 선발돼 오는 3~7월에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역사, 과학, 수학과 같은 과목들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해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who

수탁기관에서 보호 중인
61명의 위기 청소년들,
CJ문화재단의 지원을 받는
20여 명의 뮤지션들

what

위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기획된
음악 수업

튜업음악교실



2 음악을 매개로 세상과 소통하는 위기 청소년들

CJ문화재단 '튜업음악교실'

'튜업음악교실'은 비행을 저지르고 보호관찰 4호~6호 처분을 받아 수탁기관에서 보호 중인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음악 수업이다. 음악을 매개로 세상과 소통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높여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기획되었다. 이 수업에는 CJ문화재단의 지원을 받는 20여 명의 뮤지션들이 참여해, 사회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밴드 음악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고 있다. 뮤지션들은 각 보호관찰 기관을 방문해 위기 청소년들에게 보컬, 신시사이저, 기타, 드럼 등 음악을 가르쳐주면서 특별한 음악적 교감을 나누고 있다.



01

01
CJ 튜업음악교실에 참가하는 위기청소년들은 음악을 통해 변화하고 있다.

02
1월 31일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막살레밴드'의 연습이 진행됐다.

03
CJ문화재단의 지원을 받는 20여 명의 뮤지션들이 직접 위기 청소년에게 밴드 음악교육을 진행한다.



02



03

음악을 계기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아이들

CJ 튜업음악교실은 7개월간 3개 기관에서 61명의 청소년에게 악기를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기관당 40회씩 진행되는 수업이니 최소 5~6개월간 수업을 진행하는 셈이다. CJ문화재단은 강사비는 물론이고 드럼, 베이스기타, 디지털피아노, 스피커 등 교육에 필요한 악기를 구입하여 수업을 받는 기관에 전달한다.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일정 기간의 연습이 진행되면 교육 기관 내에서 진행되는 작은 발표회, 각 교육기관이 모두 모여 함께 진행하는 합동공연 등을 통해 그간 갈고닦은 솜씨를 뽐내게 된다.

1월 31일 방문한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는 '막살레밴드'의 연습이 한창이었다. 요즘 마룬파이브의 '슈가'를 연습하고 있다는 막살레밴드의 배현수(19세, 가명) 군은 "일렉기타보다 커서 그런지 베이스기타만의 울림이 악기를 연습할수록 더 좋아진다"며 베이스가 지닌 매력에 푹 빠져 있었다. CJ문화재단에서 지원한 악기들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어 놓고 있다. "악기를 태어나 만져본 적도 없거니와, 연주를 해보기 전까지 제 힘으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보거나 끝까지 했다는 느낌이 드는 일이 없었다. 처음으로 무대에 서고 연주를 하면서 성취감이 어떤 감정인지 조금씩 알 것 같다"고 말하는 배현수 군은 "베이스기타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너무 좋으시다. 잘못을 저질러 이곳에 왔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기분이 들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수업 소감을 밝혔다. 음악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싶다는 CJ 튜업음악교실의 취지가 수업을 받는 이들의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의 수업을 곁에서 지켜본 김진명 신부는 "음악 자체가 주는 변화보다는 음악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관계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며, "음악으로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단순하게 기술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였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외에도 여러 교육기관에서 CJ 튜업음악교실이 진행 중인데, 교육기관 중 하나인 '세상을품은아이들'에서 교육받던 학생 중 한 명이 래퍼로 성장해 랩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니 음악으로 새로운 인생을 만날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한다. 음악이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 현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01



9년의 활동을 돌아보다

한화그룹 '한화예술더하기 성과보고회'

'한화예술더하기'는 한화그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2009년부터 10년째 공동기획, 운영하는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협력기관, 한화그룹 임직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협업하여 다양한 성과와 파급효과를 거뒀다. 한화예술더하기 9주년 기념행사 'Arts Plus, Arts Play'가 2018년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려 지난 9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02



한화예술더하기 성과보고회

who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예술전공 대학생, 한화예술더하기 협력기관, 예술단체 사업장 관계자들, 5,000여 명의 시민들

what

아동·청소년 대상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 한화예술더하기 9주년 기념행사

한화예술더하기 지난 9년의 세월

한화예술더하기를 통해 지난 9년간 전국 125개 협력기관의 아동 3,000명, 68개 한화사업장 임직원봉사자 11,550명, 67개 예술교육단체 강사 325명이 참여했고, 총 5,938회의 수업이 진행됐다. 아동들이 창의적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한 점 등, 사회적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 평가받는 한화의 대표적인 메세나 사업 중 하나다.

지난 1월 31일에 열린 'Arts Plus, Arts Play'에서는 9주년 간 거둔 다양한 성과와 더불어 최근 예술교육 트렌드에 대해 대내외 관계자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뒤이어 유관기관 및 기업 관계자, 예술전공 대학생, 한화예술더하기 협력기관, 예술단체 사업장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성과보고회, 예술교육의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예술교육 체험프로그램까지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2월 1일에 진행된 성과보고회에서는 기업이 장기간 진정성을 갖고 메세나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한화예술더하기에 예술 강사로 9년간 참여한 공공공간의 흥성재 대표는 "한화예술더하기는 문화예술 분야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자 지역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사회공헌 활동이다"라는 내용의 사례를 발표했다.

성과발표회에 참여한 표현예술문화협회 이미숙 실장은 "한화예술더하기에 참여하는 예술단체를 선발하는 과정을 내부에서는 슈퍼스타H라고 부를

정도로 까다롭다"면서, "예술 강사 1인이 역량을 인정받아 3~4개의 지역아동센터를 담당하게 되면, 예술 강사라는 직업으로 3년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매력적이다. 또한, 협력체계가 매우 잘 갖춰져 있어서 예술 강사로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서 매우 좋다"라고 사업 참여 소감을 밝혔다. 순수 예술에 대한 열정과 현실적인 생계유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예술 강사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화그룹 사회봉사단 김상일 파트장은 "한화예술더하기를 통해 아동과 한화 임직원, 협력기관 실무자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수용도가 높아졌다. 또한 예술 강사들의 고용안정과 경력 개발에도 기여했다"며 "지속적이며 일관된 지원과 사업 운영으로 성공적인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됐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화예술더하기는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 현안 및 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2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한 예술교육체험 프로그램에는 5천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주말을 맞아 행사장을 찾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문화예술 전문 강사들의 지도로 종이 조명등 만들기, 민화 패브릭 손거울 만들기, 캘리그래피 카드 액자 만들기, 세계 타악기 체험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특히, 추운 날씨에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행사 소식에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사전 예약도 모든 회차가 마감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체험을 접수하는 대기 인원도 매우 많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

조은화
서울 송곡초등학교 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티스트들의 전문성, 재료의 참신함, 창작 방법의 수월함이 인상 깊었다. 오늘 체험한 활동들이 수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 아울러 기업이 문화예술교육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매년 평가사업을 진행하는 등 굉장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것에 대해서 놀랐고, 9년간 지속했다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김안나
예술체험에 참여한 학부모

오늘 진행한 종이등 만들기 체험은 색지에 압정으로 찍어 그림을 만들고 테이프로 감싸는 매우 단순한 과정이었음에도 근사한 등이 완성되어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참여한 저 또한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는 체험이었다. 아이들의 두 손으로 만든 종이등은 유치원에 가져가서 자랑할 거라며 매우 신나하는 모습이라 더욱 뿌듯하다.

한화호텔&리조트 유제정 사원
한화 임직원 봉사자

회사에서 임직원 봉사 활동으로 한화예술더하기 수업에 참여하면서 우리 조카들에게도 이런 좋은 예술교육을 체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조카들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즐겁게 참여하고 좋아하셔서 마음이 뿌듯하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표현예술문화협회 이미숙 실장
한화예술더하기 참여 강사

평소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할 기회가 적었던 어른들은 아이들보다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하지만 완성된 작품을 보자 더 뿌듯해하고 만족스러워했다. 한화예술더하기에서 진행한 전통문화교육의 민화 기법을 더욱 많은 사람과 체험하고 나눌 수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01
한화예술더하기 9주년 기념행사
'Arts Plus, Arts Play'의 공식 오픈을 알리는
개막식이 열렸다.

02~03
2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진행한 한화예술더하기 예술교육체험 프로그램에는
5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승희

윤성호



문화·예술계 젊은 창작자들의 활동이
눈부시다. 김수정 연출가, 윤성호 작/연출가,
이승희 소리꾼. 특유의 독특한 시각으로
관객들에게 더욱 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DAC Artist의 젊은 예술가들이다.

김수정

무대 위에 피어난 창작의 꿈

두산아트센터 DAC Artist 김수정·윤성호·이승희

두산아트센터의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인 'DAC Artist'의 젊은 예술가 3인이 발표됐다. 김수정 연출가와 윤성호 작가·연출가, 그리고 이승희 국악 창작자가 그 주인공들이다. 연출가 김수정은 그동안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해왔다. 연극 <파란나라>, <그러므로 포르노>, <인간동물원 초> 등과 같이 한국 사회의 맨얼굴을 드러낸 작품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은 그녀는, 현재 극단 신세계를 이끌면서 자신만의 연극적 색깔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극단 아이의 상임 작가이자 연출가인 윤성호는 지극히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 담담하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창작자다. 연극 <누수공사>, <미인, 거기 있던 말들>, <외계인들>,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등을 선보인 그는 자신만의 언어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입과손스튜디오에서 활동하는 이승희는 전통 음악을 넘어 음악,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소리꾼이자 배우다. 소설, 동화 등 현대적 텍스트를 판소리로 재창작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 음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젊은 예술가 3인은 앞으로 3년간 창작 활동을 지원받으며 2018년부터 두산아트센터에서 관객들과 만나게 된다.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기 전 두산아트센터에서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 DAC Artist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정 이후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윤성호(작가·연출가) __ DAC Artist에 선정된 이후 인터뷰도 늘어나고 축하 인사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직 크게 실감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면 실감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승희(국악 창작자) __ 그동안 분야를 넘나들며 다양한 작업을 해왔었는데요.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제가 이제까지 했던 작업들이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무척 기쁘고 설레어요. 함께 도전했던 친구들이 다음에는 자기 차례라며 웃으며 축하해줬는데, 더 많은 창작자들에게 이런 기회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수정(연출가) __ 좋고 설레고,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하고요. 그러면서 축하 인사받으면 쑥스럽고, 여러 생각이 복합적으로 들었어요. 어쨌든 제 작업을 좋게 보고 선정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승희

사람들에게
국악의
매력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무대에
올라
공연하는
소리꾼

- ◆ 3년 동안 다양한 창작 지원을 받게 되는데,
가장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이승희 __ 항상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어렵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제대로 된 보수를 못 주는데도 도와주는 주위 사람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 공연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하고 싶은 것이 생겨도 예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아쉬워해야 했고요. 그런데 여기 PD님들이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해보라고 해주셔서, 마음 편히 아이디어 내며 즐겁게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김수정 __ 그동안은 작업하면서 혼자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PD님들이 있어서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시기도 하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면 함께 고민해주시기도 하죠. 그런 과정이 저에게는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윤성호 __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작은 규모로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정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기대가 큼니다. 올해 두산아트센터와 함께 하는 작품은 5년 전에 이미 무대에 올렸던 공연인데요. 처음에 이 작품을 구상할 때는 좀 규모가 큰 작품이었는데, 당시 상황이 어려워서 마음먹은 대로 진행할 수 없었죠. 이번에는 좋은 스태프들과 함께 원래 보여드리고 싶었던 작품 그대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김수정

현시대의
문제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내어
무대
위에
올리는
연출가

-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창작 활동을 하는 젊은 예술가의 입장에서 기업과 예술이 상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기업의 예술 후원에 대해 바라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김수정___저는 이제까지 어딘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작업해본 적이 없어요. 이번 DAC Artist가 처음인데 이것도 이제 시작이라서 아직은 기업과 예술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단지 예술가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창작 과정이 곧 작업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과물 도출에 연연해서는 제대로 된 작업을 할 수 없죠. 예술가에게 정해진 작품을 강요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시간과 기회를 주고 기다려 줄 때, 비로소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윤성호___저도 아직 기업 후원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서 바라는 점을 꼽기도 어려울 거 같아요. 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국가 지원을 받아본 바를 말씀드리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서류 작업 때문에 작품 활동을 하는 게 힘들 정도였거든요. 이게 과연 무엇을 위한 후원인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창작자가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예술 발전을 위한 후원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승희___국악 분야는 기업의 지원이 타 장르보다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국악 공연단체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국악을 기업의 단순한 상품 중 하나로 지원한다는 느낌이라 좀 아쉬웠어요. 기업마다 슬로건을 통해 보여주려 하는 기업 특색이 있잖아요. 저는 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슬로건을 각종 예술 공연을 통해 더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국악에 한정되지 않아도 다양한 공연을 통해 기업의 문화를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한다면, 기업과 예술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 2018년의 계획과 앞으로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윤성호___몇십 년 후의 목표보다는 지금의 고민에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현재 목표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과 보는 사람 모두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연을 꼭 분석하면서 볼 필요는 없거든요. 무겁고 어렵지만 한 작품은 아니되, 돌아서면 한 번쯤 그 주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열심히 작업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희___2018년에는 두산아트센터의 공연을 준비 중인데 확정된 것은 없어요. 이승희라는 소리꾼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관객들에게 저를 잘 소개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떤 공연으로 어떻게 저를 보여드려야 할지를 계속 의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람들이 좀 더 쉽고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국악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창작자가 되고 싶습니다.

김수정___올해는 그동안 해왔던 작업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4~5월경 혜화동 1번지 6기동인 봄페스티벌에 처희 공연이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두산아트랩 등 4~5개의 크고 작은 공연을 계획 중입니다. 두산아트센터 메인 공연은 내년부터 준비해서 올릴 예정이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상이
뒤틀리는
순간으로부터
이야기를
찾아내는
작가이자
연출가



윤성호



메세나를 통한 독일 기업들의 사회적 약속과 책임

글. 류현지(문화예술 칼럼니스트·독일 리포터)



01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지 발전해야 할 문화유산이 많은 국가다. 이에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문화예술을 후원하고 있다. 이것은 독일의 문화예술 산업이 독일 경제의 부가가치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독일 기업들은 지리적 연고를 중시하고, 편향된 장르가 아닌 미술·음악·문학 등 다양한 장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02



03

01

독일 베를린에 소재한 종합금융기업
도이체 방크(Deutsche-bank) ©Simsalabimbam

02-03

해마다 BMW가 후원하여 펼쳐지는 'Staatsoper für alle'.
2010년과 2014년의 모습이다. ©Schlaier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2016년 6월 어느 날, 가로수가 울창한 운터 덴 린덴(Unter den Linden) 도로의 모습이 사뭇 달라졌다. 차로 붐볐던 도로를 막아선 광장에는 큰 무대와 사람들로 가득했다. 베를린다운 구름 낀 흐린 날씨였음에도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모여 각자가 가져온 접이식 의자를 펼치고 앉아있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집에서 싸 온 음식들과 화이트와인 한 잔에 여유로운 사람들이 가득한 이 날은 'Staatsoper für alle(State Opera for all)', 다니엘 바렌보임(Daniel Barenboim)의 지휘 아래 일 년에 한 번 열리는 오픈 콘서트가 있는 날이었다. 전 세계

적으로 저명한 지휘자가 이끄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웅장한 역사적 건축물들을 배경에 둔 황홀했던 이 콘서트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 BMW가 후원하고 있는 무료 공연이었다. 흐렸던 날씨는 어느새 파란 하늘을 내어주고 있었고, 멋진 연주로 가득한 공연이 진행되었다. 이날 베벨광장(Bebelplatz)을 가득 메운 사람들 모두가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며 가을 날씨 속에 행복한 기억을 심고 있었다.

살아있는 공동체, 그 자체로서의 가치

대부분의 독일 기업들은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윤리적 행동이나 사회적 책임과 약속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와 미래의 고객과 직원들에

게 궁극적으로 회사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 자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가치를 부여받는다라고 인식한다. 앞서 소개한 BMW 외에도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들 - 아우디(Audi),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 폭스바겐(Volkswagen) 등은 몇십 년 전부터 메세나 활동을 통한 활발한 문화예술 후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들은 고전에서부터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 아티스트와 프로젝트 지원, 문화예술교육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펼쳐 보인다.

독일 기업들은
기업 자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가치를 부여받는다
고
인식한다.



04



05

04
세계적인 명성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Monika_Rittershaus

05
베를린주립박물관(Staatliche Museen zu Berlin)
입구 모습 ©Staatliche Museen zu Berlin

06
임직원 대상의 Art Break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TRUMPF사 ©I. Reinecke

07
'art work'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도이체 방크의
현대 미술 프로젝트 ©Deutsche-bank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베를린 주립 박물관(Staatliche Museen zu Berlin)을 후원하는 슈파르카쎄(Sparkasse),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Berliner philharmoniker)의 파트너사이자 현대 미술에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도이체 방크(Deutsche Bank)와 같은 금융기업들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도이체 방크는 35년 넘게 'art work'라는 슬로건으로 직원과 고객, 일반 대중들에게 현대 미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작품 컬렉션, 비엔날레 지원, 미술공간 쿤스트할레(Kunsthalle)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 올해의 아티스트상 제정·시상, 전문 매거진 <Art mag> 발간 등 현대 미술의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 도이체 방크의 커뮤니케이션 책임 임원으로서 다년간 예술·문화·스포츠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맡아온 베르텔스만 슈트라우스(Bertelsmann Thorsten Strauß)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은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문화적 지원의 영향과 관련성을 측정해야 하며,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경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유의할 것은 콘텐츠나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고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문화예술 메세나 활동은 그 자체로 신뢰성을 얻고, 장기적 관점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야 효과적입니다.”

기업의 메세나 활동은
그 자체로 신뢰성을 얻고,
장기적 관점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야

가까이에서 발견하는 것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도시 디칭엔(Ditzingen)에 있는 첨단 공작기계 분야의 세계적인 제조사인 'TRUMPF'사에는 특별한 점심시간이 있다. 'Art Break'라는 프로그램으로 사내의 사회공헌팀에서 임직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 곳곳에 전시된 예술작품을 주제로 하여 독창성과 열정을 자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30분 동안 시각 예술, 조각, 건축, 영화뿐만 아니라 조경이나 최신 트렌드의 로비 디자인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아트 워크를 새롭게 해석하여 소개한다. 이로써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매일 통과하는 로비나 건물 내의 예술 작품들이 왜 선택되었는지, 회사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TRUMPF의 임원 중 한 명이었던 베르톨트 라이빙어(Berthold Leibinger)는 그의 이름을 딴 재단(Berthold Leibinger Stiftung)을 설립해 199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문화예술 관련 프로젝트에 약 82만2천 유로(약 11억 원)를 지원했다. 또한 슈투트가르트에 소재한 린든 박물관(Linden Museum)과 시립미술관, 지사가 설립된 오스트리아 린츠(Linz)에서 열리는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메세나
활동을 사회적 약속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지역사회
헌신에 중점을 둔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Ars Electronica) 페스티벌 후원 등 기업이 있는 지역, 기업이 특화된 분야에 있어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현재 TRUMPF의 최고 경영자인 니콜라 라이빙어-카뮐러(Nicola Leibinger-Kammüller)는 언론 인터뷰에서 “독일의 중소기업은 소재 지역과 관계가 깊은 경우가 많으며,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메세나 활동을 사회적 약속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지역사회 헌신에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새로이 메세나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게는 “후원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장기간의 관점에서 우리 기업에 맞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들 독일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관련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메세나 활동 내용이 더 풍성하고 다채로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메세나 활동의 저명한 아티스트 혹은 예술단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같은 내용과 방법을 넘어서 기업의 안과 밖, 여러 예술 장르에 걸친 지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아티스트들에게는 폭넓은 창조적 예술 활동을 보장해 주고, 대중들에게는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과 위안을 퍼트려 줌으로써 기업이 그 자체로서의 가치를 더욱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독일의 공공 부문 문화예술 지원 정책

독일에서는 공공 부문에서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 진흥정책 전반에서 운용되는 자금의 약 90%가 공적자금이고, 나머지 10% 정도가 기업이나 재단, 협회·단체, 개인의 후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독일 연방정부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주요 정책 혹은 대외교류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각 16개 주 정부에서 지역별 특수성이나 개별 중점추진 방향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한다. 수립된 정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주체로 참여해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가들의 사회보장제도 지원정책을 제외하고,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하지 않으며 주 정부 혹은 민간에서 대부분 지원한다.



메세나 포커스
- 메세나 갤러리 -

‘빛과 공간의 마술’ 예술은 감상자가 완성한다

뮤지엄산 제임스 터렐관

01





02



03



04

01
호라이즌 룸(Horizon Room)

02~03
스카이 스페이스(Skyspace)

04
스페이스 디비전(Space Division)

05
간츠펠트(Ganzfeld)

06
웨지워크(Wedgework)

강원도 원주에 자리한 미술관 '뮤지엄산'은 한국의 유명한 회화·판화작품들 그리고 세계적인 조각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다. 여러 전시공간 중에서 '제임스 터렐관'은 빛과 공간의 예술가인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 1943~)의 대표작품 5개(스카이 스페이스, 디비전, 호라이즌 룸, 간츠펠트, 웨지워크)를 볼 수 있는 특별 전시장이다. 제임스 터렐은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빛의 아름다움과 상상 너머의 공간을 창출하여 관람객들에게 무한한 공간감과 자신을 되돌아보는 명상의 공간을 선사한다. 제임스 터렐관은 최근 보수공사를 마치고, 3월 6일부터 새로이 관람객을 맞을 예정이다. 📍

05



06



균형과 질서의 미학을 창조하다

한국 전통 매듭과 마크라메

01



02





03

01
밀화불수 단작노리개 ©국립고궁박물관

02
〈레이스 제작에 사용한 비늘 작업에 관한 논문(1892년)〉에 게재된 마크라메 이미지 ©Mary Bradford

03
수장생문오색낭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의 매듭은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용도가 다양해져 실생활의
장식용으로 애용됐다.

한국 전통 매듭과 마크라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실을 엮거나 맺고 짜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다. 매듭 문화는 고대부터 여러 지역에서 생겨나 그 지역의 고유한 전통 문화로 전승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세밀함과 예술성으로 높은 수준의 매듭 문화를 발전시켜왔고, 현재 남아 있는 유물에서 그 화려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중동의 매듭 문화가 르

네상스 시대 이후 유럽으로 전해져 18~19세기에 활짝 꽃을 피웠는데, 오늘날 우리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생활 매듭 마크라메(macramé)가 바로 그것이다.

전통 매듭을 만드는 장인들, 매듭장

한국 전통 매듭의 시작은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매듭은 일상생활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던 단순한 것이었지만, 삼국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화려하게 발전하면서 아름다운 장식품으로써 생활에 파고들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방식의 한국 전통 매듭은 앞뒤가 똑같고 절대 대칭의 무늬로 구성된다. 단정하면서도 기개가 느껴지는 매듭의 아름다움은 오랜 시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조선 시대에는 옥새 손잡이를 장식하는 데 쓰일 정도로 가치 있는 장식품으로 인정받았다.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매듭을 많이 사용했는데 노리개, 각종 주머니, 도포끈, 호패술, 선추술 등의 개인 물품은 물론이거니와 실내 장식, 악기 장식, 예복, 종교의식 등 실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됐다.

쓰임이 많은 만큼 종류도 다양했으며 자연히 매듭을 생업으로 삼는 이들도 늘어났다. 그들이 바로 매듭장이다. 명주실을 염색하는 것부터 시작해 합사하여 만든 끈목으로 화려한 매듭을 만들고 술을 다는 것까지 모두 그들의 몫이었다. 한국 전통 매듭의 과정은 워낙 길고

복잡하여 기록만으로 이해해서 만들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매듭은 매듭장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이 전통은 근대로 접어들면서 단절되고 만다. 일제강점기의 전통문화 말살 정책으로 매듭 문화가 훼손되어 단절되기 시작했고,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며 생활문화 양식이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매듭을 찾는 이가 줄어들기도 영향을 미쳤다. 국가가 매듭장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몇 남지 않은 매듭장들도 끊어졌던 전통 매듭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그사이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 현재는 약 30여 종의 기본형 매듭만 전해지고 있다.

아라비아 지역의 수공예 매듭, 마크라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매듭 중 대표적인 것이 마크라메(macramé)다. ‘레이스’라는 뜻의 마크라메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13세기 서반구의 아랍 직공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

마크라메는 끈이나 천의 끝단에 실로 고리를 걸어 그 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묶는 매듭 방식이다.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아랍 선원들은 항해 중 쉬는 시간에 마크라메를 만들어 정박한 지역에 그것을 팔아 수입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선원들에게서 마크라메를 구입한 유럽 사람들은 독특한 형태의 매듭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고 이는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다.

우리 전통 매듭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소실된 것이 많아,
기본형 매듭
30여 종만 존재한다.

04



05



06





07

04
십장생문 자수 붓주머니 ©국립고궁박물관

05
이진 십장생문 자수 약주머니 ©국립고궁박물관

06
대삼작노리개 ©국립고궁박물관

07
마크라메를 만드는 과정 ©foam

08
거실 벽면 장식용으로 활용된 마크라메
©TEDDY AND WOOL



08

마크라메는 재료의
숫자에 구애됨 없이
여러 색상과
질감을 가진 줄을
사용하여 만든다.

마크라메의 전성기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19세기 중반~20세기 초)였다. 당시 대다수 영국인의 집에는 마크라메로 만든 장식품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유행이 그러하듯, 시간이 흐르면서 마크라메의 인기도 시들해졌다. 이후 사람들의 기억에서 거의 잊혔던 마크라메는 1970년대 미국 히피 문화와 만나면서 다시 한번 인기를 구가하게 된다. 자연친미파의 히피들이 끈으로 여러 형태를 만들어내는 마크라메의 선(線) 예술에 빠져든 것이다. 하나의 끈목으로 만드는 우리 매듭과 달리, 마크라메는 여러 색상과 질감의 줄을 사용하여 만든다. 꼬임·색상·강도·넓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표현할 수 있고, 팔찌·목걸이·가방·술 같은 개인 소품에서부터 벽걸이·매트·커튼 등의 인테리어 소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물건으로 만들어진다. 이

당시 특히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액세서리류였다고 한다.

마크라메의 인기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까지 전파됐다. 처음에는 액세서리로 시작됐지만, 마크라메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하면서 급기야 직접 만들고 싶다는 사람도 생겨났다. 최근에는 마크라메 관련 강좌도 많이 생겨나는 등, 머나먼 이국에서 찾아온 새로운 매듭은 점차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 ▼




세계를 빛낸 아름다운 동행

설원량문화재단 &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세계 최고의 베를린 뮤직 페스티벌(Musikfest Berlin)에 아시아 최초로 초청받은 오케스트라가 있다. 바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이하 경기필)다. 아시아 최고로 손꼽히는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나 홍콩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제치고 한국의 오케스트라가 초청받은 것이다. 독일 국영방송(Deutschlandfunk)에서는 이례적으로 경기필의 공연을 전국에 생중계하기도 했다.

설원량문화재단의 A&B 결연단체인 경기필이 요즘 아시아의 주요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급성장하고 있다. 설원량문화재단이 2014년 후원을 시작한 이후 곧바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기필은 2015년 한국 오케스트라 최초로 독일 자브뤼켄에서 열린 자르뮤직페스티벌(Musikfestspiele Saar)에 정식 초청받았고, 작년에는 폴란드 국영방송 초청으로 카토비체에서 공연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 오케스트라 최초로 세계적 레이블 '데카(DECCA)'에서 말러 교향곡 5번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다.

경기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연주 기회도 늘었다. 2016년, 2017년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리카르도 무티와 공연하며 "지휘자의 요구에 민첩하게 반응하는 오케스트라"라는 극찬을 받았으며, 핀커스 주커만, 솔로모 민츠, 빌데 프랑, 케이트 로열 등과도 협연했다.

올해는 총 6번의 '비르투오소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공연한다. 로열 콘서트허바우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인 다니엘레 가티, 뉴욕필 음악 감독으로 선임된 얀 판 츠베덴, 마린스키 극장 오케스트라와 스웨덴 챔버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겸 지휘자 니콜라이 즈나يدر,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 겸 슬로베니아 방송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인 리오 삼버달, 오페라 지휘에 정평이 나있는 마시모 자네티 등이 경기필을 지휘할 예정이다. 설원량문화재단과 경기필의 아름다운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장애 아동의 ² 예술 교육을 위한 기금 조성

한미약품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지난 2월 25일 여의도 KBS홀에서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빛의소리 나눔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는 장애아동의 예술교육을 위한 '빛의소리희망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콘서트로, 2013년부터 서울대 의대 출신의 의사 오케스트라 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이하 MPO)와 한미약품이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MPO는 197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향악단 출신의 의사들이 만든 'Doctors Ensemble'의 활동을 계승해 1989년 창단했으며, 음악을 통해서 소외이웃과 희망을 나누기로 뜻을 모아 서울대학교 병원 로비에서 환자를 위한 희망의 음악회를 개최하고,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함께 공연을 펼쳐 평양의학대학병원 소아병동 건립기금 모금에도 힘을 보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6회 공연은 춘천시립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인 이종진이 지휘를 맡고, 클래식 해설가 장일범이 공연을 진행했다. 5년째 '빛의소리희망기금'으로 음악교육을 받고 있는 청록원의 '블루엔젤스콰이어'가 Electric Romeo로 카혼 연주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의 합주단 '어울림'이 '신세계에서의 하나 됨'과 '즐거운 농부'를 연주하며 막을 열었다. 이어진 MPO의 공연 1부에서는 주페의 경기병 서곡과 브람스의 교향곡 1번 C단조 op.68 중 4악장을 연주했으

며, 2부에서는 소프라노 김은경이 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테너 신동원이 베르디 오페라 <리골레토> 중 '여자의 마음'을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 듀엣곡으로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를 환상의 호흡으로 불러 열띤 환호를 받았다.

2013년부터 시작된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는 공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재단에서 공모한 장애아동청소년 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에 예술교육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음악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1회 선정기관인 청록원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에는 5년째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MPO와 한미약품은 이번 공연에서도 매칭펀드 형식으로 빛의소리 나눔기금을 조성해 장애아동의 예술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MPO 유권 단장은 "장애아동 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된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는 올해로 6주년을 맞이하며 의료계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문화사각지대에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 따뜻한 희망을 나누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1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제10대 한국메세나협회 신임 회장 취임

2월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에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이 선출되었다. 김영호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 3년이다. 김 회장은 2003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을 맡아 활동해 왔다.

김영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업 메세나 활동은 국가 문화 발전을 위한 기틀이며,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희망이자, 기업과 브랜드의 품격을 높이고 종업원의 충성도를 높이는 훌륭한 경영 전략이다”며, “협회 창립 24년간의 공적과 성과를 더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더욱 투명하고 품격 높은 협회로 이끌어가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 김영호 회장은 “현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평소의 소신대로 현대미술, 현대음악 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활동을 보였다. 1989년 ‘일신문화재단’을 설립한 이후 음악, 미술, 건축, 연극 분야의 단체와 예술가들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으며, 2009년 한남동 사옥에 현대음악 전문공연장인 ‘일신홀’을 건립하여 현대음악 저변 확

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일신작곡상을 신설, 현대음악 작곡자 양성에도 힘써왔으며, 한국바그너협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클래식 음악 분야의 지원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광주비엔날레, 대한민국건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예술후원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미술관회 이사, 예술의전당 후원회 부회장 및 고문,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 등의 공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메세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2007년 ‘몽블랑 예술후원자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에는 정부에서 수여하는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송영숙 가현문화재단 이사장을 이사로 신규 선임했으며 정기총회에서는 음악 영재인 플루티스트 한여진 양의 축하연주가 진행되어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았다. 



2 메세나 기업인 네트워크 '네오 메디치 포럼' 발족

한국메세나협회는 문화예술과 후원에 관심 있는 기업 CEO들의 네트워크인 '네오 메디치 포럼'을 발족했다. '네오 메디치 포럼은 메세나 기

업인들이 함께 예술을 즐기고 문화적인 친목을 도모하는 문화예술 리더십 포럼이다.

예술지원 매칭펀드에 참여하는 기업 대표자뿐 아니라 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기업인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 포럼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인이 메세나와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의 정보를 교류하는 네트워킹 모임을 지향한다. 예술애호가들의 모임인 만큼 고품격 공연 및 전시를 함께 관람하고, 예술인들과 함께 국내외 문화현장을 직접 탐방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법조계, 학계, 의료계 등 포럼에 참여하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활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오 메디치 포럼은 지난 1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 <캣츠> 관람과 함께 첫 번째 모임을 가졌다. 20여 명의 기업인과 10여 명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다. 📷

A&B 스토리



기업과 예술의 뜻 깊은 콜라보레이션 종근당 예술지상 - 종근당 & 아트스페이스 휴

오늘날 메세나 활동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공헌활동 테마로 자리 잡았다. 다만, 이러한 메세나 활동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목표를 갖고 시행되기 보다는 사회적인 이슈나 트렌드에 맞춰 프

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일회성, 단발성 지원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5년(2013~2017년) 간의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고 다시 5년 동안(2018~2022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종근당 예술지상' 프로그램은 여러 시사점을 제시한다. 종근당과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 한국메세나협회가 협력하여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매년 3명의 신진 미술작가를 선발해 1인당 연간 1천만 원씩 3년 동안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 마지막 해에는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술계에는 매년 수많은 신진작가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드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망작가 중 미술계의 중심에 진입하는 작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능성을 인정받은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차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기획의도다.

순수미술 작가 중 평면회화 작가들을 지원하는 '종근당 예술지상' 프로그램은 지난 5년간의 사업이 미술계에 큰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에 따라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향후 5년 간 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종근당과 아트스페이스 휴, 두 메세나 커플이 어떤 발자취를 남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

열정과 성실함으로 완성하는 희망의 메시지
삼성화재 <제2회 비바챔버앙상블 정기연주회> 개최

삼성화재는 지난 2월 9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환물결아트센터에서 <제2회 비바챔버앙상블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비바챔버앙상블'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장애 학생의 역량향상과 전문연주자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삼성화재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의 후원으로 2015년 5월 창단된 발달장애인 관현악 앙상블이다.

지난해 새롭게 구성된 2기 단원들은 세계 정상급 플루티스트 마크 그로웰스와 세종솔로이스츠 단원들과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전문연주자라는 꿈에 다가갈 기회를 가졌다. 또한, 비올라 우재승(서울대학교), 더블베이스 이준영(한국예술종합학교), 바이올린 박모세(한국예술종합학교) 단원들이 악기 전공으로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는 좋은 소식도 있었다.

이번 연주회는 바이올린, 플루트, 피아노 등으로 구성된 총 15명의 단원이 클래식 전곡을 연주하여 수준 높은 실력을 선보인 1부와 대중적으로 친숙한 곡들이 연주된 2부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2부 중간에는 빈 국립음대 출신으로 다수의 오페라 및 콘서트를 진행해 온 이승용 테너가 등장하여 비바챔버앙상블의 연주와 하모니를 이루는 협연도 진행되었다. 여러 곡을 한 무대에서 발표하기 위해 더 많은 연습과 노력을 해야 하는 비바챔버앙상블 단원들은 어렵게 준비한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피아니스트 조성진에 '제8회 금호음악인상' 시상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박삼구 이사장은 1월 12일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제8회 금호음악인상' 수상자로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선정하는 시상식 및 축하음악회를 열어, 새로운 금호음악인의 탄생을 알렸다.

금호음악인상은 만 30세 미만의 클래식 기악 연주자 중 탁월한 음악성으로 장차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이를 격려하고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이번 제8회 금호음악인상 수상자는 국내 클래식 음악계의 음악가, 언론인, 문화예술기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두 달여에 걸친 심사로 선정되었으며, 조성진은 이번 수상으로 2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연주 활동 지원을 위해 2년간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비즈니스석 이용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박삼구 회장은 "2005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조성진이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장하여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가 될 그의 음악 활동에 관심과 지원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축하를 전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2005년 만 11세의 나이로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 데뷔했으며, 지난 2015년 세계적 권위의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다. 또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주최의 2017 사이먼 래틀 & 베를린 필하모닉 내한 공연에서도 완벽한 협연 무대를 선사하였고, 독일 베를린을 포함한 4개 도시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CJ문화재단

<2018 CJ x Berklee Music Concert> 개최

CJ문화재단은 오는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CJ아지트 광흥창에서 <2018 CJ x Berklee Music Concert>를 진행한다. ‘버클리야 함께하느 스프링 뮤직 콘서트’라는 부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버클리의 교수진과 CJ대중음악장학생 출신의 스타 뮤지션이 함께하는 특별한 콘서트다. CJ문화재단은 지난 2011년부터 미국 버클리 음악대학을 시작으로 줄리아드 음대, 맨해튼 음대, NEC 등 해외 우수 음악대학에서 대중음악을 전공하는 한국 유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과 예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CJ대중음악장학사업을 시행해왔다.

이번 공연에는 세계적인 음악대학 버클리 음대의 최고 교수진들, 기타리스트 Rick Peckham, 보컬리스트 Chantel Hamton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함께 뉴욕이 사랑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송영주, 재즈와 펑크를 넘나드는 JSFA, 정교하면서 역동적인 에너지를 가진 여성 드러머 서수진 등 탁월한 역량의 재즈 뮤지션들과 CJ대중음악장학생 출신의 음악 장르를 넘나드는 라이징 스타 뮤지션 김영후, 신명섭, 신동진, 심규민, 그리고 대한민국 실용음악대학 연주자들로 구성된 오프닝 밴드 BITTER SWEET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가족과 연인을 위한 한 편의 꿈같은 발레극

LG연암문화재단 LG아트센터 <헨젤과 그레텔>

영국을 대표하는 4대 발레단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이 그림 형제의 동화를 바탕으로 한 <헨젤과 그레텔>을 한국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내한공연은 1992년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 부부의 방한과 함께 이루어졌던 첫 내한공연에 이어 무려 26년 만이다.



감칠맛 나는 현대적인 각색과 아름답고 화려한 무대 미술, 여기에 탄탄한 기량을 갖춘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의 환상적인 앙상블에 힘입어 탄생한 이 작품은 이미 익숙한 이야기라는 선입견을 뒤집고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되어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마을, 부모님의 엄격한 보호 아래 집 안에서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며 서로 티격태격하는 남매 헨젤과 그레텔. 사라진 친구들을 찾으러 몰래 집을 빠져나와 마법의 숲으로 들어간 이들 앞에는 흥미진진한 모험과 뜻밖의 만남이 펼쳐진다.

특히, 본 공연은 LG연암문화재단이 2016년부터 LG아트센터를 통해 운영하는 공연예술분야 직업 체험 프로그램인 ‘LG 꿈꾸는 프로듀서’의 일환으로 천여 명의 중학생들이 단체로 관람할 예정이다. 관람 후 출연 배우와의 대화 시간 및 LG아트센터 임직원들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 교육을 진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실험정신이 가득한 연주

<서울시향 2018 티에리 피셔와 호칸 하르덴베리에르>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오는 4월 18~19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서울시향 2018 티에리 피셔와 호칸 하르덴베리에르> 공연을 연다. 이날은 현역 최고의 트럼페터 호칸 하르덴베리에르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수석객원지휘자 티에리 피셔와 함께 치머만의 협주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호칸 하르덴베리에르는 빈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바이에른 방송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등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해 왔으며, 피에르 볼레즈, 앨런 길버트, 다니엘 하딩, 네메 예르비, 잉고 메츠마허, 예사 페카 살로넨, 데이빗 진먼 등의 지휘자와 한 무대에 서왔다. 고전 레퍼토리 외에도 현대 작품의 가장 진취적인 개척자인 그를 위해 버트위슬, 헨체, 마르틴손, 아르보 패르트, 터니지 등이 작품을 헌정했으며 이 작품들은 하르덴베리에르에 의해 초연 후 트럼펫 레퍼토리로 정착됐다.

지휘자 티에리 피셔는 공연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에게 매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하이든의 흥미로운 초기 교향곡 <철학자>와 계몽주의를 찬미하는 베토벤의 서곡, 아이브스의 수수께끼 같은 작품 <대답 없는 질문> 등도 있다. 연주곡들이 주는 질문 자체가 그 답 못잖게 마음을 빼앗게 될 것이다. 또한 공연시작 30분 전인 7시 30분부터 송주호 음악칼럼니스트의 프리렉처가 함께 진행되어, 공연이 가진 철학적 메시지를 관객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두산연강재단 두산아트센터

<두산인문극장 2018: 이타주의자> 진행

두산연강재단 두산아트센터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두산인문극장 2018: 이타주의자'를 진행한다. 두산인문극장은 매년 상반기 하나의 주제로 사회학, 인문학 등 각 분야의 석학들을 초청하여 주제와 결부된 공연, 강연, 전시를 포괄하는 통합 기획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두산인문극장은 2018년 '이타주의자'를 주제로 관객들과 만난다.

'두산인문극장 2018: 이타주의자'는 '어떻게 이웃과 함께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다. 이 길에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이타적인 것이라고 볼 것인지, 희생은 어떤 지점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희생을 진정으로 값어치 있는 것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본다.

강연 프로그램은 최정규, 이진우, 김학진, 홍성욱 등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강연자를 초청하여 총 8회 진행한다. 강연은 4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진행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예약이 가능하다. 7월까지 진행되는 두산인문극장은 강연 이외에도 연극 <낮심>, <피와 씨앗>, <애도하는 사람>과 두산인문극장 기획전시도 함께 진행한다.



삼성물산, 서초우성1차 재건축 3월 분양 예정

삼성물산이 3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일대에서 '서초우성1차 재건축(가칭)' 아파트를 분양한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2개 동, 총 1,317세대(전용면적 59~238㎡)다. 일반분양 세대는 약 232세대로, 이중 주택형 △83·84㎡ 타입이 전체 일반 분양물량의 약 ⅓ 수준이며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보기 힘든 대형 평형도 공급될 예정이다.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도보 이용...

서초동 5천 세대 이상 브랜드타운 탈바꿈

서초우성1차 재건축은 교통과 생활, 교육 인프라를 두루 갖췄다. 또 아파트가 입지한 서초동 일대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대규모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먼저 입지 면에서 교통이 편리하다. 신분당선 강남역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강남 대표 도로인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로 접근이 쉽다. 여기에 강남역 일대는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와 공항버스 등의 우수한 대중교통망도 갖춘 곳이다.

강남권 일대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하기 쉽다. 인근에 예술의전당, 강남 세브란스병원, 메가박스(강남), CGV(강남), 이마트(역삼점) 등이 있다. 우수한 교육환경도 장점이다. 서초고·양재고·서울고·은광여고 등 8학군 지역이며, 단지 인근에 서이초와 서운중이 위치했다.

한편 단지가 들어서는 서초동 일대는 재건축이 본격화 되면서 대규모 브랜

드 타운으로 변신 중이다. 이미 래미안 서초에스티지(총 421세대, 서초우성3차 재건축, 2016년 12월 입주)가 입주를 마쳤고, 래미안 서초에스티지 S(총 593세대, 서초우성2차 재건축, 2018년 1월 입주 예정)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서초무지개(총 1,618세대, GS건설), 서초신동아(총 1,356세대, 대림산업) 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재건축이 완료될 경우 서초동 일대는 5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건본주택은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래미안갤러리에 마련될 예정이다.



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62
단지명	서초우성1차 재건축(가칭)
전용 면적(㎡)	59~238
총 가구수(일반 분양)	1317(232)
분양시기	3월
시공사	삼성물산
문의	1588-3588

March 3



두산아트스쿨
2.22~3.29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두산아트센터의 무료 강좌 프로그램으로 남성택 교수와 19~20세기의 건축, 예술,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연극 <미저리>

2.9~4.15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베스트셀러 '미저리' 시리즈의 작가 폴 셀던과 그의 광팬인 애니 윌크스의 이야기를 다룬다.



서울시향 2018 실내악 시리즈 I
3.6 /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이안 보스트리지가 피아니스트 사스키아 조르지니 및 서울시향 단원들과 함께 깊고도 넓은 예술적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금호아트스트 'The Winners': 피아니스트 손정범

3.8 / 금호아트홀
ARD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1위를 거머쥔 피아니스트 손정범이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서울시향 2018 올해의 음악가 이안 보스트리지 ① ②
3.10~3.11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이안 보스트리지가 부르는 '녹탄'을 통해 더 깊은 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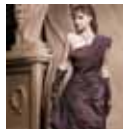
장파 개인전

3.14~4.18 / 두산갤러리
사회에서 겪는 구조적 폭력, 부조리 등을 인식하고 그 이면에 내포된 이야기들을 회화나 설치, 영상으로 표현한다.



소프라노 다니엘 드 니스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 <모차르트에서 브로드웨이까지>

3.15 / LG아트센터
전 세계 오페라 무대를 총횡무진 누비고 있는 소프라노 다니엘 드 니스가 처음으로 내한한다.



클래식 나우! 색소포니스트 아사 파테예바

3.15 / 금호아트홀
색소포니스트 아사 파테예바가 첫 내한 독주회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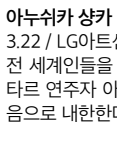
서울시향 2018 베토벤 교향곡 '영웅'

3.16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젊은 스페인 지휘자 멘데스가 멘델스존의 '뤼 블라스' 서곡으로 연주를 시작하며, 베로니카 에베를레가 슈만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다.



연극 <전화벨이 울린다>

3.20~4.1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콜센터의 감정노동자와 배우의 만남과 일상을 통해 현실의 진위, 갑과 을의 관계 및 다양한 노동의 충위를 담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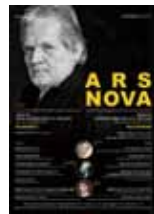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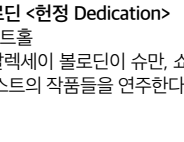
아누슈카 상카 <Land of Gold>

3.22 / LG아트센터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시타르 연주자 아누슈카 상카가 처음으로 내한한다.



인터내셔널 마스터즈 시리즈: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볼로딘 <헌정 Dedication>

3.22 /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알렉세이 볼로딘이 슈만, 쇼팽 그리고 리스트의 작품들을 연주한다.



서울시향 2018 아모레퍼시픽과 함께하는 아르스 노바 I:
실내악 콘서트 <PALIMPSEST>
3.23 /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푸러의 세계초연곡이 청중의 귀를 놀라게 할 음향을 창조하며 귀를 놀라게 할 것이다.

서울시향 2018 아모레퍼시픽과 함께하는 아르스 노바 II: 관현악 콘서트 <MULTIVERSUM>

3.30 / 롯데콘서트홀
우주적인 규모의 작품으로 서울시향이 세계 유수의 악단들과 함께 위탁한 작품이자 한국초연작이다.

KBS교향악단 제728회 정기연주회 <로맨틱 센터멘털리즘>

3.23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첼리스트 파블로 페란데스의 연주와 함께 프로코피예프, 차이콥스키 등 러시아 음악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다.



금호아트스트 'The Winners': 오보이스트 함경

3.29 / 금호아트홀
오보이스트 함경이 바로크, 프렌치에 이어 모던까지 아우르는 레퍼토리로 오보에가 가진 음색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이다.

마이클 키간-돌란 <백조의 호수>

3.29~3.31 / LG아트센터
마이클 키간-돌란이 아이리시 감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든 혁신적인 무용극으로 한국 관객들을 찾아 온다.



April 4



리사 피셔 & 그랑 바통

4.1 / LG아트센터
세계적인 팝 뮤지션들이 가장 선호하는 백보컬로 꼽은 리사 피셔가 그랑 바통과 함께 한국에서 처음으로 단독 공연을 연다.

인터내셔널 마스터즈 시리즈: 피아니스트 콘스탄틴 리프시츠

4.5 / 금호아트홀
천재성을 입증한 피아니스트 콘스탄틴 리프시츠가 10년 만에 금호아트홀에서 독주회를 연다.



세븐 핑거스 x 리퍼블릭 씨어터 <보스 드림즈>

4.6~4.8 / LG아트센터
히어로니무스 보스의 그림들이 환상적인 입체영상과 아름다운 아크로바틱을 통해 무대에 생생하게 살아난다.



연극 <낯심>

4.10~4.29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낯심 솔리만푸어의 최신작으로 2017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초연, 'Fringe First 2017'을 수상한 작품이다.

낯심 ©Studio Doug

클래식 나우!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4.12 /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가 <클래식 나우!> 시리즈로 돌아왔다. 이번 무대는 네이버 V LIVE 채널로도 생중계된다.



서울시향 2018 실내악 시리즈 II

4.12 /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티에리 피셔가 트럼펫 연주자 하르덴베리에와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병사의 이야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흥겹고 멋진 음악 이야기로 가득한 공연을 시작한다.

KBS교향악단 실내악 시리즈 I <The Cello>

4.13 / 예술의전당



4년만에 선보이는 실내악 시리즈의 첫 무대로 영화음악과 춤곡 등 익숙한 음악들을 첼로앙상블의 낮고 깊은 음색으로 전한다.



막달레나 코제나 & 라 체트라 바로크 오케스트라 <위기의 여인들>
(지휘. 안드레아 마르콘)

4.17 / LG아트센터
막달레나 코제나가 5년 만에 내한해 '위기의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색다른 바로크 무대를 선사한다.

서울시향 2018 티에리 피셔와 호칸 하르텐베리에르

4.18~4.19 / 롯데콘서트홀
하이든의 흥미로운 초기 교향곡 '철학자'와 계몽주의를 찬미하는 베토벤의 서곡, 아이브스의 '대답 없는 질문' 등을 통해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새로운 시선'

4.19 / 금호아트홀
젊은 거장들이 두 대의 첼로 작품 그리고 비올라, 첼로, 피아노 삼중주와 같은 익숙한 듯 낯선, 흔치 않은 편성의 실내악 레퍼토리로 무대를 채운다.



연극 <하이젠버그>

4.24~5.20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우연히 만난 두 남녀, 외롭고 고독한 그들의 대화를 통해 삶의 위로와 인간성의 본능에 대해 이야기한다.



클래식 나우! 피아니스트 레미 제니에

4.26 / 금호아트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프랑스의 신성 피아니스트 레미 제니에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독주회를 연다.



한태숙 연출 신작 <엘렉트라>

4.26~5.5 / LG아트센터
한태숙이 대표적인 희랍 비극 중 하나인 <엘렉트라>를 새롭게 선보인다. 배우 장영남과 서이숙이 출연한다.

KBS교향악단 제729회 정기연주회 <교향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2018.4.27 / 예술의전당
2018.4.28 / KBS홀
지휘자 타다아키 오타카가 트럼페터 티네 텡 헬세트의 호쾌한 사운드로 하이든과 훔멜의 협주곡을 들려준다.



서울시향 2018 마르쿠스 슈텐츠의 말러 교향곡 제5번

4.27~4.28 / 롯데콘서트홀
서울시향 수석객원지휘자 슈텐츠가 말러의 후학 두 사람의 작품으로 콘서트를 시작한다.



May 5

2018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REBORN PAGANINI>
5.3 /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가 파가니니 24개의 카프리스 독주 무대를 연다.



KBS교향악단 실내악 시리즈 II <The Principal>
5.4 / 예술의전당
오랜 시간 음악적 교감을 나눈 수석연주자의 앙상블로 명화 속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연극 <피와 씨앗>

5.8~6.2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부녀 사이의 장기 이식을 놓고 벌이는 가족 간의 다툼을 소재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묻는다.



피와 씨앗 ©Traverse Theater

베토벤의 시간 '17'20: 피아니스트 프랑수아 프레데리크 기

5.10 & 5.17 / 금호아트홀
프랑수아 프레데리크 기의 베토벤 소나타 전곡 사이클, 그 세 번째와 네 번째 무대가 이어진다.



로베르 르빠주 연출 <달의 저편>

5.16~5.19 / LG아트센터
캐나다 출신 천재 연출가 로베르 르빠주가 2003년 자신을 처음으로 한국에 알린 작품 <달의 저편>을 15년 만에 다시 선보인다.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 <헨젤과 그레텔>

5.23~5.27 / LG아트센터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이 그림 형제의 동화를 바탕으로 한 <헨젤과 그레텔>을 한국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서울시향 2018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8번

5.24 / 롯데콘서트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은 작곡가가 사랑한 체코 전원의 새소리와 민속춤곡으로 가득하다.



베토벤의 시간 '17'20: 첼리스트 김두민, 피아니스트 김태형



5.24 & 5.31 / 금호아트홀
첼리스트 김두민과 피아니스트 김태형의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무대를 새롭게 시작한다.

KBS교향악단 제730회 정기연주회 <피안의 세계를 향한 동경>

2018.5.25 / 예술의전당
2018.5.26 / 롯데콘서트홀
인간사에 대한 사색과 탐구를 담은 말러의 마지막 교향곡을 말러 스페셜리스트 요엘 레비의 지휘로 선보인다.



회장사	금호타이어	(주)맥스무비	영앤인셈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일신방직	금호홀딩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오리콤	한국수력원자력
부회장사	금호미쓰이화학	(주)모나미	오비맥주 주식회사	한국암웨이
경남스틸	금호석유화학	목천김정식문화재단	올림푸스한국(주)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생명보험	금호폴리켄	문화유산국민신탁	와이에스케이미디어	한국전력공사
(주)루홀딩스	금호피앤비화학	미디어월	우리종합금융	한맥도시개발
동성코퍼레이션	기업은행	미래에셋대우	(주)우진	한미회계법인
벽산엔지니어링	김영사	법률사무소 C&B	우진건설(주)	한미약품
삼성미술관(삼성문화재단)	나라삼양감속기	베이글카페	원마운트	한빛문화재단
삼양홀딩스	나라통상(주)	보령제약(주)	원암문화재단	한세실업
설원량문화재단	(주)나우피플	본아이에프(주)	원포시스(주)	(주)한진
세아제강	네이버문화재단	불보간식기계코리아	유안타증권	(주)한화
(주)유니드	네이처스웨일리코리아	(주)브레드가든	유중아트센터	한화생명
중근당	(주)노루비케미칼	삼성SDI	이건산업	한화손해보험
코오롱그룹	(주)노루오토코팅	삼성SDS	인산죽엽 주식회사	한화케미칼
크라운 해태제과	(주)노루페인트	삼성물산	인터파크 큐브릿지	현대백화점
풍산그룹	녹십자	삼성생명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현대자동차
한화갤러리아	뉴서울 컨트리클럽	삼성서울병원	재단법인 송강재단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현대해상화재보험	뉴스킨 코리아(주)	삼성엔지니어링	제우인베스트먼트(주)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사	뉴욕제과	삼성전자	제일기획	(주)호텔롯데
가현문화재단(한미약품)	다보성고미술전시관	삼성중공업	조선호텔	(주)호텔롯데 면세점
고려당	(주)다진	삼성증권	조은시스템	호텔신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대림산업	삼성카드	종이문화재단	홈플러스
디자인하우스	대상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주식회사 차오름에프앤비	환경관리 주식회사
(주)신세계	대상문화재단	(주)삼양인터내셔널	지앤히어링코리아	힐라코리아
이건홀딩스	대상산업가스	삼익문화재단	청림출판	휴맥스
사라	대신증권	삼일회계법인	카카오	BMW코리아(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우건설	(주)삼화에프앤에프	컨슈머타임스	BNK 부산은행
파라다이스그룹	대한상공회의소	삼환기업	케이옥션	CJ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제분	상암커뮤니케이션즈	코리아골프앤아트빌리지	GS칼텍스재단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대한항공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코카콜라음료	(주)HK
효성	더페이스샵코리아	서울예술기획	크레디아 인터내셔널	(재)KBS교향악단
한성자동차	도서출판 '삶과 꿈'	서울옥션	(주)클라우드나인마케팅	KB국민은행
POSCO	동서식품	(주)성도GL	태영건설	KDB생명
SK SUPEX추구협의회	동아쏘시오홀딩스	세일ENS	퍼시스	KT
사회공헌위원회	동아출판	세화예술문화재단	포스코ICT	KT&G
LG연암문화재단	동일방직	소니코리아	프라임개발	LG생활건강
회원사	동일FnG(주)	(재)송원문화재단	필립모리스	LG전자
가나아트갤러리	두리비전	(주)스파크인터내쇼날	하나은행	LG화학
간삼건축	(주)두산	신라교역	(사)한국FPSB	LH
강원랜드	두산 산업차량(주)	신성씨에스	한국GM	LMS
경남은행	두산건설	신한금융투자	한국경영자총협회	OCI
공간종합건축사무소	두산엔진(주)	신한은행	한국공항공사	SK건설
광주요	두산연강재단	신한카드	한국공항주식회사	SK네트웍스
금융투자협회	두산인프라코어	아시아나HDT(주)	한국광고주협회	SK에너지
금호건설	두산중공업	아시아나에어포트(주)	한국국제교류재단	SK증권
금호고속	롯데렌터카	아시아나항공	한국남동발전	SK텔레콤
	롯데문화재단	아이엔지생명	한국마사회	SK해운
	롯데백화점	(주)아이피케이	한국무역협회	TCC중앙
	르노삼성자동차	(주)에스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NEW MEMBER



(재)가현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적극적인 활동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창립한 재단으로 2003년에 국내 최초 사진전문 미술관인 한미사진미술관을 개관한 후, 한국 사진계를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전시를 비롯하여 작가지원 및 학술, 출판, 국제 교류 등의 활동을 하는 한편, 사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들을 후원함으로써 상호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2018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 안내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중소·중견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예술단체에 추가로 펀드를 지원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올해 12년째를 맞이했으며, 3월부터 2018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START!

2018 예술지원 매칭펀드

신청접수

- 2018년 3월 5일(월) - 펀드 소진 시까지
- 1차 심사: 4월 둘째 주 예정
- 1차 교부설명회: 4월 셋째 주 예정
- 사업 신청은 상시 접수 받으나,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진행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소기업보다 규모가 크면서 매출액이 1조원 이하인 기업
- **예술단체**: 문예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임의단체, 경영 실적 공시가 가능하거나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단체, '매칭펀드 예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단체 및 문화예술 인프라

제출서류

- **기업**: 기업 지원신청서 및 공문 1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1부, 손익계산서 1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조건부기부신청서 1부, 장부가액 확인서 1부(현물 기부의 경우)
- **예술단체**: 예술단체 지원신청서 1부
- ※ 기업 및 예술단체 지원신청서는 한국예세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심사기준

- **기업**: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역량, 지속지원 가능 여부 등
- **예술단체**: 신청프로젝트 계획, 연간활동계획, 과거 활동실적, 기업 교류협력프로그램의 충실도, 사회기여프로그램의 시행 정도 등

지원금액

- **중소기업**: 펀드교부금과 기업지원금의 1:1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매칭펀드 예술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펀드 교부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며, 상위금액의 쿼터가 소진될 경우 하위금액의 쿼터로 조정될 수 있음
- **중견기업**: 펀드교부금과 기업지원금의 1:2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상위금액의 쿼터가 소진될 경우 하위금액의 쿼터로 조정될 수 있음

참고사항

- 1) 1개 기업이 최대 2개 예술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 2) 5년 동안 연속해서 지원을 받은 예술단체의 경우, 2년 동안의 휴지기간을 갖고 재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예술단체 변경 시 기업은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음
- 3) 기업의 지원금은 지원금 전용 통장으로 지급되며 바로 사용 가능, 추가로 매칭되는 펀드교부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함

접수

fund@mecenat.or.kr

문의

A&B팀 배소윤, 02-786-9657, sybae1015@mecenat.or.kr

DAC Artist

DAC Artist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창작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07년부터 운영한 '두산아트센터 창작자육성 프로그램'이 2018년부터 'DAC Artist'라는 새 이름으로
3명의 새로운 젊은 예술가를 지원합니다.

2018 선정 아티스트

김수정 연출

윤성호 작가/연출

이승희 국악창작자

지원 내역

3년간 신작 창작 시 제작비 전액 지원
신작 워크숍 및 해외 리서치 지원

2007-2017 선정 아티스트

양손프로젝트

이경성 연출

양태석 드럼아티스트

김은성 작가

여신동 아트디렉터

성기웅 작가/연출

이자람 국악창작자

서재형 연출/한아름 작가

DOOSAN ART CENTER

YONKANG Hall | Space111 | DOOSAN Gallery Seoul | DOOSAN Gallery New York | DOOSAN Residency New York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artcenter.com